

타이완

SPECIAL PLAN

타이완에서 한잔 하세요

FOOD CUL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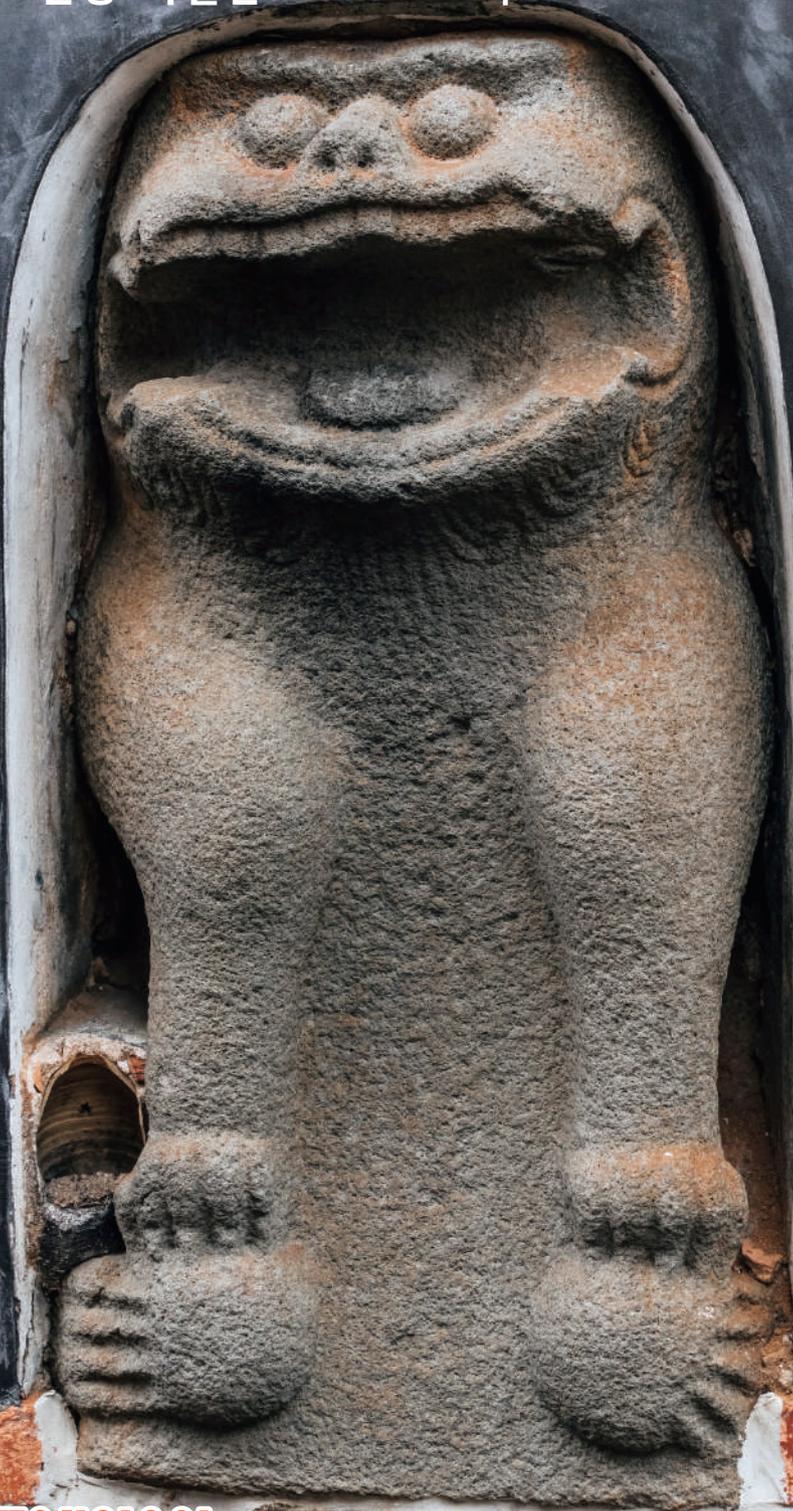
매력만점의 타이완 요리

SPECIAL PLAN

싼샤

관광 격월간 2025 Mar - Apr.

no.59



진먼

해협 위 타임캡슐

섬 이야기

TAIWAN

WAVES OF WONDER



Engage NOW

자연과 로하스가 어우러진 대만
초록빛 숲속 철로를 지나는 순간, 숨겨진 해안가 절경이 펼쳐집니다
산과 바다를 품은 마을을 누비며 충만한 생명력을 만끽해 보세요



02



16



22



30

02 *Feature Story*

진먼 섬 이야기

16 *Food Culture*

매력만점의 타이완 요리

22 *Special Plan*

싼샤

30 *Special Plan*

타이완에서 한잔 하세요

34 *Special Plan*

난터우에서 맛보는 차와 커피

38 *Column*

타이완온천 반딧불이와 특별한 밤을 신활수 타이완시 -《그 밤 관쯔링에서》



창간일시 2012년 5월
발행호수 59
발행일자 2025년 3월~2025년 4월
대만관광협회 (台灣觀光協會) 회간
회장/발행인 簡余晏
명예회장 葉菊蘭
부회장 蘇成田, 凌瓏, 莊豐如
편집고문 鐘逸寧, 陳婷妤, 張仲宇, 劉宇庭
발행 재단법인 대만관광협회
주소 타이베이 중사오동로 4단 285호 8F-1
TEL 886-2-2752-2898 FAX 886-2-2752-7680
E-mail yasir@tva.org.tw WEB www.tva.org.tw

대만관광협회 서울사무소(교통부 관광청)
주소 서울시 중구 삼각동 115번지 경기빌딩 9층 902호
TEL 82-2-732-2357~8 FAX 82-2-732-2359
E-mail taiwan@tourtaiwan.or.kr WEB www.tourtaiwan.or.kr

대만관광협회 부산사무소(교통부 관광청)
주소 부산시 중구 중앙대로72 907호
TEL 82-51-468-2358 FAX 82-51-468-2359
E-mail busan@tourtaiwan.or.kr WEB www.taiwantour.or.kr

발행처 시아국제문화사업유한공사
사장 胡代華
총편집 劉恩英
총감수 李建樹
기획 張正菱
번역 金慧媛, 金那映, 宋善玉, 金雅煥
디자인 謝向羣, 蔡緯儒
업무부 萬麗娟, 呂麗君
발행부 江秀明
재무부 蔡慧君

주소 타이베이시 신이로 4단 265항 20농 5호
TEL 886-2-2325-2323 FAX 886-2-2701-5531
E-mail editor@v-media.com.tw
WEB www.v-media.com.tw

인쇄 엘리트 컬러 채색제판인쇄유한공사
판매가 NT\$180



타이완관광청

진먼

해협 위의 타임캡슐

섬 이야기

글 / 리젠수(李建樹) 사진 / Vision Create, 각 가게 제공

清香飯

타이완 해협을 가장 서쪽에는 특별한 섬이 있는데 마치 파도에 부드럽게 둘러싸인 타임캡슐처럼 조용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추어내길 기다리고 있다. 이곳은 바로 진먼 섬, 금문도(金門島)이다. 진먼은 서울 면적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150 제곱킬로미터의 해양 보석같이 놀라운 문화유산과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타이완 본섬에서 비행기를 타고 단 한 시간 만에 235 킬로미터의 바다를 건너 이야기가 가득한 땅에 도착할 수 있다.

진먼은 주로 크고 작은 두 개의 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곳은 긴 군사 준비 시기의 전선 진지였다. 긴장과 압박감으로 가득했던 그 세월은 뜻밖에도 수많은 군사 유적과 훼손되지 않은 자연 생태라는 귀중한 선물을 진먼에 남겼다. 바로 그 시대의 특수한 사명 덕분에 진먼은 과도한 상업 개발을 피하고, 고풍스러운 전통 건축물과 풍부하고 다양한 자연 경관을 보존할 수 있었다.

진먼에 와서 이 독특한 타임캡슐을 직접 열어 보길 초대한다. 이곳에서는 모퉁이마다 감동적인 이야기가 숨겨져 있으며, 각 경치는 멈춰서 감상할 가치가 있다. 역사와 현대가 얽혀있는 풍경 속에서 그녀의 가장 감동적인 매력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진면의 인상

이 사진은 진허리 강다오(金合利鋼刀)가 제공합니다.

술, 칼, 수호신, 이야기가 있는 섬의 보물

진면에 대해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진하고 부드러운 진면 고량주, 포탄으로 만든 단단한 칼, 그리고 거리 구석구석에 서서 묵묵히 이 땅을 지키고 있는 평스예라고 하는 상징 동물이다. 이 세 가지 진면 특산품은 여행객들에게 꼭 필요한 기념품일 뿐만 아니라 진면의 독특한 역사와 문화를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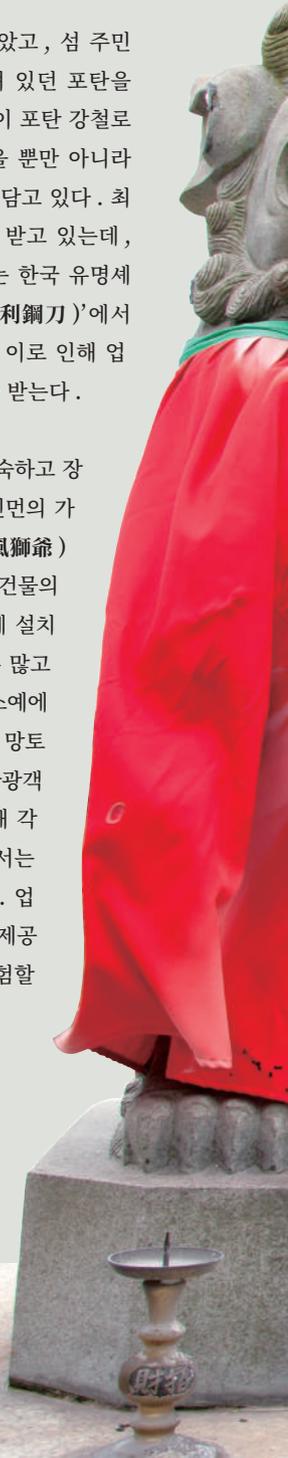
‘진면 고량주’는 타이완 독주를 대표하는 술로, 수수를 원료로 정성껏 양조한 이 훌륭한 술은 타이완에서 많은 애호가들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독특한 향은 국제 시장에서 더욱 사랑받고 있으며, 심지어 한국에도 알려져 대리 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진면 고량의 맛을 좋아한다면 당연히 진면에 직접 방문하는 것이 좋다. 여기서는 가격이 저렴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술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좋은 술을 생산하는 진면 주창(金門酒廠, 양조장)은 그 자체로 독특한 관광 명소이다. 양조장의 생산 과정을 가이드와 함께 둘러볼 수 있으며, 더 특별한 것은 지하 갱도에 들어가 수많은 술이 보관된 장관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이다.

‘포탄 식칼’이라는 명성을 가진 진면 식칼은 치열한 전투와 관련된 과거 이야기를 대표한다. 1958년 ‘진면 포격전’ 기

간 동안 진면은 집중적인 포격을 받았고, 섬 주민들은 전쟁이 끝난 후 각지에 흩어져 있던 포탄을 매우 독특한 식칼로 재탄생시켰다. 이 포탄 강철로 만든 식칼은 날카롭고 내구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전쟁터에서 평화로운 변화의 의미도 담고 있다. 최근 포탄 식칼이 한국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 2024년 말 ‘딤섬의 여왕’으로 불리는 한국 유명세프 정지선이 ‘진허리 강다오(金合利鋼刀)’에서 식칼 여러 개를 구매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업자들이 뜻밖에 한국에서 많은 주문을 받는다.

진면의 거리와 골목에서는 언제나 엄숙하고 장엄한 사자상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진면의 가장 대표적인 문화 토대인 평스예(風獅爺)이다. 이러한 수호동물 상들은 보통 건물의 문 앞이나 지붕, 또는 마을 높은 곳에 설치된다. 진면의 평스예는 그 수가 매우 많고 모양이 독특하다. 지역 주민들은 평스예에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화려한 망토를 만들어 주기도 한다. 현재 많은 관광객이 다양한 풍모의 평스예를 보기 위해 각지를 방문하고 있으며, 주요 마을에서는 각종 다양한 기념품도 찾을 수 있다. 업자들은 평스예 채색 등 DIY 활동을 제공하여 관광객이 민속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진면 고량주, 식칼 그리고 평스예 석조는 진면의 세 명물이다.



1 진허리 강다오는 칼날에 용 문양이 새겨진 식칼을 세트로 출시했다. 2 진면 고량주는 진면 양조장의 다년간의 양조기술과 천연 지하수를 사용하여 양조된다. 3 진면의 대표적인 문화 토텐인 평스에는 현지 길거리에서 자주 볼 수 있다.



1



2



3

진청진

金城鎮

허우푸 상권 (後浦商圈)

시공을 초월한 상업 거리

진면을 방문한다면 잊지 말고 꼭 가봐야 하는 곳이 있는데, 바로 진청진(金城鎮)에 위치한 ‘허우푸 상권’이다. 진면 공항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위치하여 여행의 첫 번째 또는 마지막 코스로 안성맞춤이며, 진면에서 가장 변화한 상권으로 알려져 있으나 많은 역사 유적들도 남아 있어 만나질 정도 투자하여 차근차근 둘러볼 만하다.

허우푸 상권하면 ‘모판제(模範街)’를 빼놓을 수 없다. 이 거리는 1924년 현지 상회에서 자금을 모아 조성한 이색 거리로 가로길과 세로길로 나뉘며, 정돈된 거리에 고풍스러운 건축물들이 어우러져 한 폭의 정교하게 디자인된 예술작품을 연상시킨다. 진면 특산품을 구입하고 싶다면 여기가 바로 보물창고라고 할 수 있는데, 한 번에 모든 기념품 쇼핑을 마칠 수 있다. 모판제에서 멀지 않은 ‘허우푸 16 예술문화특구(後浦16藝文特區)’는 옛 거리에 새로운 색채를 더해주는 곳으로 오랜 역사를 지닌 고옥에 창의성이 돋보이는 이색 상점들이 입점하여 ‘오래된 건축물, 새로운 영혼’의 컨셉으로 실현하였다.



쉐이터우 마을 (水頭聚落)

아름다운 화교 무역상들의 고향

허우푸 상권에서 차로 약 8분이면 도착하는 이곳은 진청진 남서쪽 모퉁이에 위치한 쉐이터우 마을이다. 바다와 멀지 않은 마을인 이곳은 근처에 부두가 자리하여 일찍이 중요한 교통의 중심지이기도 하였다. 현지 주민들은 농업과 어업으로 생계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과거 무역상들은 바다로 나가 해상무역으로 엄청난 부를 쌓기도 하였다. 해외에서 성공한 진면 상인들은 고향으로 돌아와 화려하고 웅장한 대저택을 지었는데 이러한 성공스토리는 쉐이터우 마을뿐만 아니라 진면의 다른 여러 마을에서도 전파되었다. 그 결과 진면은 많은 해외 화교들의 뿌리가 되는 ‘화교들의 고향’으로 불리게 되었다.

쉐이터우 마을에는 진면에서 가장 잘 보존된 전통 건축물이 자리하고 있는데, 건축물의 정교함과 아름다움도 최고로 꼽을 수 있다. 진면 관광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마을의 고택은 이색적인 숙박 시설로 탈바꿈하였으며, 대표적인 예로 ‘쉐이터우 슈자이(水頭舒宅)’를 꼽을 수 있다. 전통 건축물의 아름다움을 깊이 체험하고 싶다면, 백 년 고택이 차분히 들려주는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이곳에서 하루 묵는 것도 좋은 선택이다.

또한, 쉐이터우 슈자이로 가는 길에 ‘젠궁위(建功嶼)’를 방문하는 것을 잊지 말자. 이곳은 진면 본섬과 려위(烈嶼) 사이의 해상 초소다. 썰물 때 돌길을 따라 젠궁위에 오를 수 있으니 진면판 모세의 기적이라고도 불린다.



1 모판제에 고풍스러운 건축물들을 볼 수 있다. 2 진면 특산품은 모판제에 구입할 수 있다. 3 진면 공탕은 진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전통 사탕이다.



젠공위는 진면 본섬과 레위 사이에 위치함



진면의 전통 건축물인 웨이터우 슈자이다.

진닝항

金寧鄉

구닝터우 (古寧頭)

전쟁의 시련을 간직한 마을

진먼섬 북서쪽 모퉁이에는 역사적 정취가 가득한 마을인 '구닝터우 (古寧頭)'가 자리하고 있다. 이곳은 베이산 (北山), 난산 (南山) 및 린취 (林厝) 라는 세 개 마을로 이루어져 있으며 베이산과 난산 사이에는 '쌍리후 (雙鯉湖)'라는 작은 호수가 자리하고 있다. 구닝터우 주민들의 성씨는 대부분 '리 (李)'씨이며 이러한 성씨 분포의 특색은 현지 유적지 건축물에도 반영되어 있다.

많은 역사 건축물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단연 18 세기 말에 세워진 '구룡터우전웨이디 (古龍頭振威第)'로 리씨 가문의 높은 지위를 보여준다. 이국적인 정취가 가득한 '베이산구양러우 (北山古洋樓)'는 1930년 대 필리핀에 체류했던 리씨 삼형제가 지은 것으로 동서양 건축의 특색을 융합하여 그 시절 동남 아시아에서 열심히 살아온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준다.



1

한편, 평온하던 이 땅에 1949년 충격적인 '구닝터우 전투'가 발발하였다. 우월한 전략적 위치로 인해 이곳은 국공 양군이 교전하는 중요한 전쟁터가 되었다. 56시간에 달하는 격렬한 교전 끝에 최종적으로 타이완 국군은 진먼섬을 수호했으며, 이후 수십 년간 이어지는 양안 간 군사적 대치가 시작되었다. 오늘날 이러한 역사의 흔적은 현지 구석구석에 선명하게 새겨져 있다. 베이산구양러우에 얼룩진 탄알의 흔적은 그 당시 전투 상황을 소리 없이 설명해 주고 있으며 주요 전쟁터였던 '린취 포진지 (林厝砲陣地)'는 현재 진먼 평화기념공원으로 조성되었고 '구닝터우 전사관 (古寧頭戰史館)'의 귀중한 사료들은 이 중요한 전투의 전말을 완벽하게 기록하고 있다. 한때 대중국 심리전 방송을 송출한 '베이산 방송벽 (北山播音牆)'은 특별했던 그 시대의 역사적 흔적을 여실히 보여준다.

최근 몇 년 사이 현지 지방 정부에서는 이색적인 전동차 여행 코스를 마련하여 여행자들이 저탄소 여행 방식으로 구닝터우의 인문학적 풍경과 정취를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동차의 탑승 장소는 진먼 평화기념공원 (金門和平紀念園區)으로 출발 시간은 오전 8시 30분과 오후 2시 20분이며 모든 코스를 둘러보는데 약 한 시간 반 정도 소요된다. 전사관, 방송벽, 구양러우 등 주요 명소를 비롯해 마지막 코스로 쌍리호수의 습지를 둘러보며 여행자들은 구닝터우의 전쟁 문화, 인문 역사 및 자연 생태를 한 번에 경험할 수 있다.

1 구닝터우와 레위에는 업자들이 전기 자전거 여행 일정을 제공한다. 2 베이산 평스에이다.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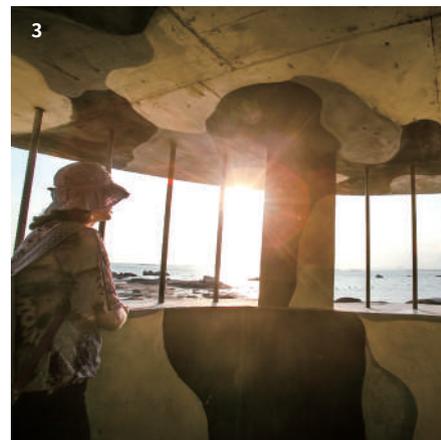
3 베이산과 난산 사이에는 상리후라는 작은 호수가 자리하고 있다.
4 베이산 방송벽은 대중국 심리전 방송을 송출하로 설치되었다. 5 베이산구양러우는 아직 벽에 얼룩진 탄알의 흔적을 볼 수 있다.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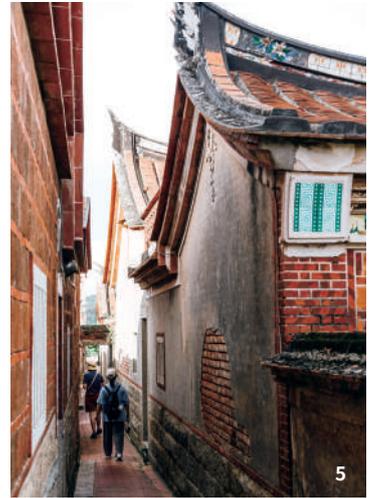
2



3

金湖鎮 진후진, 金沙鎮 진샤진

진면 동반도 여행 문화경관을 찾아서



5

진후진과 진샤진은 진면섬 동쪽에 위치하여 현지인들은 ‘동반도’라고 부르며, 서쪽의 진청진과 진닝향은 ‘서반도’로 부른다. 진면섬의 발전사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동쪽 반도가 서쪽 반도보다 일찍 개발된 지역이었으나 이후 형세가 바뀌어 ‘서강동약’을 형성하게 되었다. 그러나 동쪽 반도는 인문학적 역사와 군사 유적이 있어 서쪽 반도에 뒤지지 않으며, 훨씬 고요하고 소박하며 아름답다.

동반도 여행의 첫 번째 코스는 진후진의 ‘총린 마을(瓊林聚落)’이다. 이곳은 진면에서 가장 큰 규모의 고택 마을로, 예로부터 학문적 수준이 높아 많은 인재를 배출하였다. 이 마을은 차이(蔡) 씨가 집성촌을 이루고 있으며,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조상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올리는 사당에 해당하며, 장엄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종사 및 가묘들이다. 총린에서는 가족 구성원이 시험에 합격하거나 관직에 오르게 되면 가묘를 짓곤하여 이 지역에는 가묘의 수가 특별히 많다. 그중 국가 유적으로 지정된 ‘차이씨

가묘(蔡氏家廟)’는 대표적인 건축물로 정교한 조각과 건축 공법과 예술을 엿볼 수 있다.

총린을 떠나 남동쪽으로 향하면, 찬란했던 시대를 상기시키는 ‘천정란 양러우(陳景蘭洋樓)’, 전통 공예품을 전시한 ‘진면 도자기공장(金門陶瓷廠)’을 차례대로 둘러볼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진면 최고급 호텔이자 면세 쇼핑센터인 진후호텔(金湖飯店)에 이르게 된다. 동서양 건축 스타일이 융합된 양러우 건축물을 감상하고 도자기 공예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여정으로 현대적인 숙박시설과 오락시설도 즐길 수 있다.

이미 많은 고택 건축물을 봤을지라도 진샤진의 ‘산허우 민속문화촌(山后民俗文化村)’을 놓쳐서는 안 된다. 이곳은 진면 관광지로 전면 개방된 마을중의 하나이며, 마을에는 의례, 경사, 무도관 등을 테마로 한 전시관을 비롯해 소규모 식당과 숙박업소 등이 자리하고 있다. 군사를 테마로 한 관광 명소에 방문하고 싶다면 문화촌 뒤쪽에 갯도식포진지인 스산포진지(獅山砲陣地)로 향해보자. 또한 진샤진 북동쪽 끝자락에 위치한 마산 지역에 있는 마산 관측소(馬山觀測所)는 과거 타이완해협 맞은편 중국의 해상 활동을 감시하던 군사 요새로 진면에서 중국 샤먼(廈門)과 가장 가까운 거점이기도 하다. 관측소 안에는 지하 갯도가 있으며, 내부에서 제공하는 망원경으로 중국을 조망할 수 있다.

1 마산 관측소 안에는 지하 갯도가 있으며, 내부에서 제공하는 망원경으로 중국을 조망할 수 있다. 2 진후호텔은 진면 최고급 호텔이자 면세 쇼핑센터이다. 3 마산 관측소는 과거 타이완해협 맞은편 중국의 해상 활동을 감시하던 군사 요새이다. 4 진면 도자기 공장에 전통 공예품을 직접 볼 수 있다. 5 총린 마을에서는 가족 구성원이 시험에 합격하거나 관직에 오르게 되면 가묘를 짓곤하여 여기에는 가묘의 수가 특별히 많다.



4

레위향

烈嶼鄉

전선 중의 최전선 전쟁 문화로 가득한 섬 중의 섬

레위는 진먼섬 서쪽에 위치한 독립된 섬으로 진먼섬보다 작아 '샤오진먼(小金門)'이라고도 불리며, 중국 샤먼섬에서 불과 5킬로미터 떨어져 있어 '최전선'으로 간주되는 곳이다. 전시 해제 이후, 과거에 레위에 건설된 군사 거점들은 중요한 자원으로 전환되어 진먼 관광 산업 발전에 커다란 매력 포인트로 작용하고 있다.

레위를 여행하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해안길을 따라 섬을 한 바퀴 도는 것이다. 레위 면적은 진먼 본섬의 10분의 1도 되지 않으며, 해안길은 원래 탱크가 오가던 전시 작전 도로로 전체 길이가 약 18킬로미터이다. 개인 체력에 따라 전기 스쿠터나 자전거를 타고 환도에 도전해 볼 수 있다. 주궁 부두(九宮碼頭)에



2



1

서 출발하여 시계 반대 방향으로 걷다 보면 테한 보루(鐵漢堡), 용스 보루(勇士堡), 후징터우 전사관(湖井頭戰史館), 링웨이 후 조류 관찰 구역(陵水湖賞鳥區) 및 샤시 보루(沙溪堡) 등의 명소를 차례대로 만나게 된다. 도로 양쪽에 늘어선 푸르른 나무는 그늘을 만들어주고 해안 경관과 어우러져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이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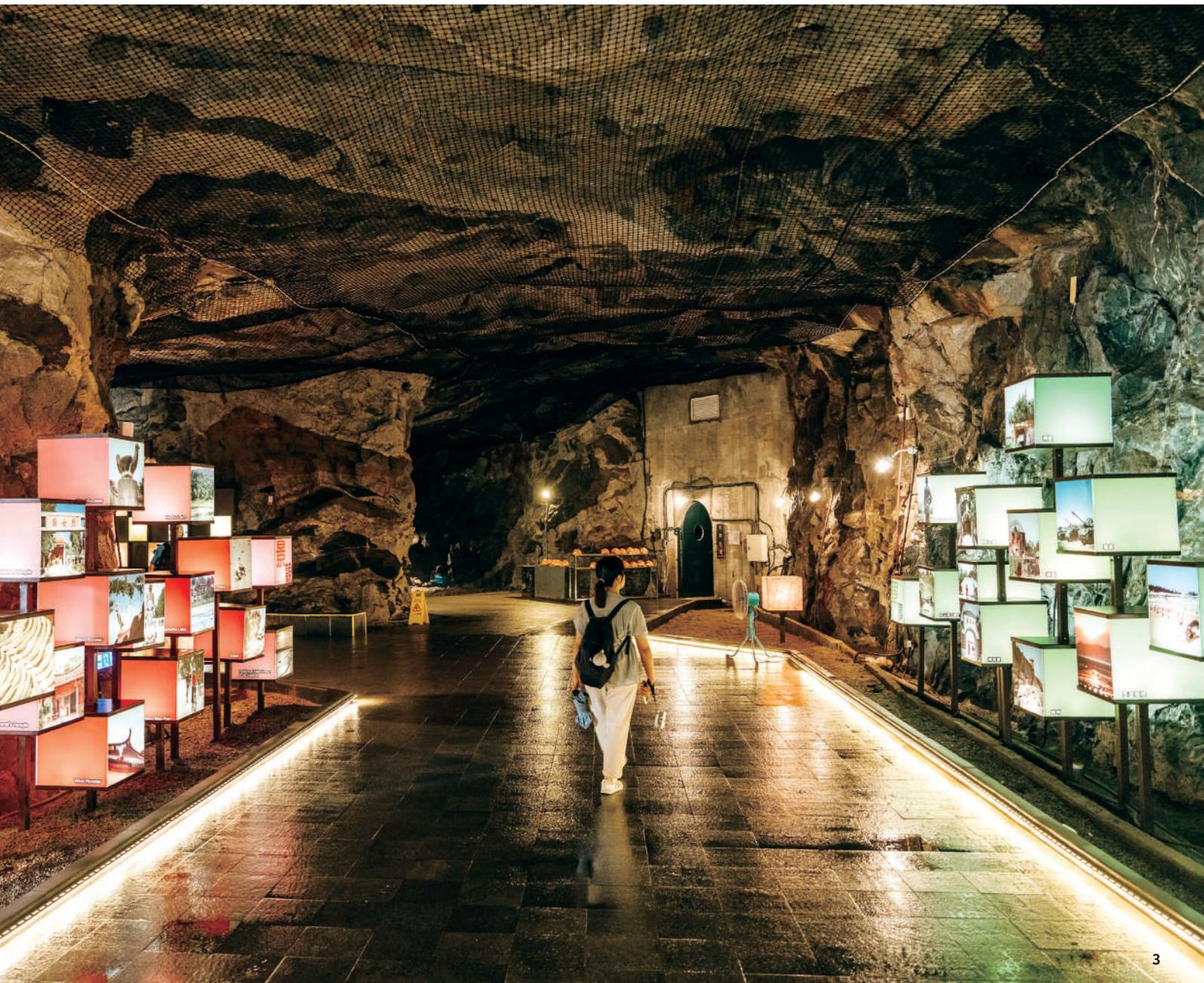
1992년 전시 상태 해제에 따라 레위는 군사적으로 긴장된 최전선 생활에서 벗어났으나 대규모의 철군은 섬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 군인들의 소비로 인해 활기가 넘치던 거리도 활기를 잃었다. 그러나 위기 속에도 기회가 있듯이 레위는 관광산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독특한 전쟁 역사 유적지와 자연 경관을 바탕으로 타이완의 '10대 매력적인 섬'과 '고풍스러운 마을' 타이틀에 연이어 선정되기도 하였다.

섬을 돌며 자연 경관 및 전쟁 유적을 둘러보는 것 외에도 거리 여행을 계획해 보는 것도 좋다. 특별히 시팡과 동린 지역을 추천하는 데 이곳에서는 옛 거리, 고택 및 전통 상점을 통해 현지의 인문학적 정취와 역사의 흔적을 느낄 수 있다.

시팡 지역에는 과거 주둔군으로 인해 변화했던 전쟁터 거리(戰地一條街)는 역사적 정취를 가득 담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거리 조성 사업으로 인해 적막했던 옛 거리에 새로운 활기가 불고 있다. 동린 지역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1972년 세워진 화난 탄산음료 공장(華南汽水廠)으로 지역 발전의 산증인이기도 한 이 오래된 공장은 오랜 기간 방치되다가 2020년에 재탄생하였다. 추억의 고사관으로 탈바꿈하여 기념상품을 판매하고 탄산음료 DIY 체험도 제공하여 인터랙티브 방식으로 과거를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였다.

1 전쟁터 거리는 이제 맛집들이 많이 있는 관광거리이다. 2 오래된 화난 탄산음료 공장은 오랜 기간 방치되다가 2020년에 재탄생하였다.





3



4



4

3 九宮坑道(九宮坑道)는 전시에는 군사 운보 작업의 안전을 확보한 곳이다.
4 후징터우 전시관에 있는 공중전화는 많은 군인들의 공통된 추억이다.

진면을 처음 오시는 분을 위한 팁

진면을 처음 방문하는 여행객은 2~3 일의 일정을 계획할 것을 추천한다. 전쟁터 문화를 깊이 체험하거나, 여유롭게 여러 마을을 탐방하고 싶다면 4 일 이상의 일정을 통해 이 섬을 더욱더 여유롭게 알 수 있다. 관광 명소는 진면 구석구석에 분포되어 있으며, 일부는 서로 꽤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동 시간을 많이 절약하고자 하면 지역별로 일정을 짜는 것이 좋다. 그리고 대중교통 운행 횟수가 제한되어 있어 직접 운전하여 여행하는 것이 가장 편리하다. 진면의 사계절은 각각 다른 풍경을 가지고 있지만, 기온도 적당하고 비도 잘 내리지 않는 가을이 가장 관광하기 적합하다.



관광 서플 (타이완 하오싱) 공식 웹사이트



진면 관광가이드 웹사이트

진면으로 가려면

교통 정보

타이완 본섬에서 진면으로 가는 방법은 비행기를 타는 것이다. 현재 유니에어(立榮航空)와 화신항공(華信航空)이 타이베이 송산 공항, 타이중, 가오슝 등지에서 진면공항으로 가는 노선을 제공하고 있다. 비행시간은 약 1 시간 정도 소요되며, 사전에 예약하길 추천한다. 타이완 연휴 기간은 피하는 것이 좋다.

섬의 교통

- 렌터카를 이용한 자가운전** : 진면 공항과 수이터우 부두 근처의 렌터카 회사에서 자동차 및 오토바이 대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성수기에는 미리 예약하는 것을 권장한다. 현지에도 택시 투어 서비스가 있으며, 전세 버스는 반나절 이상 위주로 손님 맞춤형 여행을 계획할 수 있다.
- 타이완 하오싱 관광버스** : 현재 아홉 개의 노선이 있으며, 진면 방방곡곡을 다닐 수 있게 잘 계획된 노선이며 요금이 매우 저렴하여 직접 운전하고 싶지 않은 여행객에게 매우 유리한 교통수단이다. 하지만 운행 횟수가 비교적 적기 때문에 미리 시간표를 확인하여 여행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다.



- 전기 자전거** : 구닝터우와 레위에는 업자들이 전기 자전거 여행 일정을 제공한다. 정해진 시간대에 출발할 경우 사전 예약하는 것을 추천한다. 각 시간대에 여유 좌석이 있는 경우 현장에서 대기할 수 있다.

꼭 구매해야 할 진면 특산품

가장 먼저 구매해야 할 진면 고량주와 진면 칼 외에도 진면에는 거부할 수 없는 특색있는 음식과 기념품들이 있다. 현지 전통 음식부터 수수를 활용한 혁신적인 제품까지. 가족과 지인을 위한 완벽한 선물이 될 것이다. (단, 육류제품은 국가별 반입규정 참고)



진면 공탕 金門貢糖

고소한 땅콩이 부드러운 맥아당에 싸여 있으며, 진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전통 사랑이다.



마화쥐엔 麻花捲

튀긴 반죽이 밧줄로 얽혀 있는 것처럼 보이는 바삭하고 맛있는 전통 페이스트리아다.



이타오곤 一條根

현지 약재로 만든 만능 연고로, 통증 완화 효과가 있어 어르신들이 가장 좋아하는 제품이다.



수제 국수 手工麵線

강한 바닷바람에 건조 숙성되어 쫄깃한 식감을 가지고 있어 탕면이나 비빔면으로 제격이다.



진면 육포 金門牛肉乾

술지게미를 먹던 육포로 만들어졌으며, 단단한 식감과 독특한 풍미로 중독성이 있다.



수수 에그롤 高粱蛋捲

수수쌀로 만들어 바삭하고 맛있는 전통 에그롤의 새로운 버전이다.



14

마산 관측소
馬山觀測所

스산 포진지
獅山砲陣地

13 12

산허우 민속문화촌
山后民俗文化村

진샤진

4 베이구산양러우
北山古洋樓

5 구룡터우전웨이디
古龍頭振威第

6 구닝터우전사관
古寧頭戰史館

7 진먼 평화기념공원 (린취포진지)
金門和平紀念園區 (林厝砲陣地)

차이씨 가묘
蔡氏家廟

8

진후호텔
金湖飯店

진후진

진허리 강다오 관광공장
金合利鋼刀 (觀光工廠)

젠궁위
建功嶼

3

진먼주창
金門酒廠

천징란 양러우
陳景蘭洋樓

9

진먼 도자기 공장
金門陶瓷廠

10

1 허우푸 상권
後浦商圈

진먼 공항

진청진

진청진

1 허우푸 상권 後浦商圈
Add 진청진 중싱로, 주광로, 모판제 주변
(金城鎮中興路、莒光路、模範街一帶)

진닝항

2 푸진먼주창 金門酒廠
Add 진닝항 타이위안로 1호 (金寧鄉桃園路1號)
Tel 082-325-628 #88418 Open 8:00-17:30
Web www.kkl.com.tw

3 진허리 강다오 관광공장 金合利鋼刀 (觀光工廠)
Add 진닝항 보위로 1 단 236 호
(金寧鄉伯玉路一段 236 號)
Tel 082-323-999 Open 9:00-18:00
Web www.maestrowu.com.tw

4 베이구산양러우 北山古洋樓
Add 진닝항 구닝마을 베이산 55-3 호
(金寧鄉古寧村北山 55-3 號)

5 구룡터우전웨이디 古龍頭振威第
Add 진닝항 구닝마을 베이산 25 호 옆
(金寧鄉古寧村北山 25 號旁)

진후진

8 차이씨 가묘 蔡氏家廟
Add 진후진 총림마을 155 호 옆 (金湖鎮瓊林村 155 號旁)

9 천징란 양러우 陳景蘭洋樓
Add 진후진 청공마을 1 호 (金湖鎮成功村 1 號)
Open 9:00-17:00

10 진먼 도자기 공장 金門陶瓷廠
Add 진후진 어촌 14 호 (金湖鎮漁村 14 號)
Tel 082-332-856
Open 平日 8:00-12:00, 13:30-17:30
週六 9:00-17:00, 周日休

11 진후호텔 金湖飯店
Add 진후진 타이후로 2 단 218 호
(金湖鎮太湖路二段 218 號)
Tel 082-338-688
Web www.goldenlakehotel.com

진샤진

12 산허우 민속문화촌 山后民俗文化村
Add 진샤진 산허우마을 (金沙鎮山后村) Open 8:00-17:00

13 스산 포진지 獅山砲陣地
Add 진샤진 산허우마을 (金沙鎮山后村) Open 8:00-17:30

14 마산 관측소 馬山觀測所
Add 진샤진 관아우 동베이자오 (金沙鎮官澳東北角)
Open 8:30-17:00

레위향

15 테한 보루, 용스 보루 鐵漢堡、勇士堡
Add 레위향 황푸마을 (烈嶼鄉黃埔村) Open 8:00-17:00

16 후징터우 전사관 湖井頭戰史館
Add 레위향 후징터우 2-2 호 (烈嶼鄉湖井頭 2-2 號)
Open 8:30-17:00

17 전쟁터 거리 戰地一條街
Add 레위향 서파라오제 (烈嶼鄉西方社區 (西方老街))

18 사시 보루 沙溪堡
Add 레위향 칭치마을 (烈嶼鄉青岐村)

19 화난 탄산음료 공장 華南汽水廠
Add 레위향 81-2 호 (烈嶼鄉 81-2 號)
Tel 0985-117-107 Open 9:00-18:30



매장별만점의

타이완은 뭐로

글 / 장지린 (張芷菱) 사진 / 매장별 제공, Vision Create

수백 년간 끊임없이 발전해 온 타이완 요리는 다양한 민족들의 요리 센스가 모여 풍부한 음식 문화를 이루었으며 오늘날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원주민들의 음식 문화는 타이완섬에서 일찍이 시작되었다. 대부분 불에 굽거나 물에 끓이는 방식으로 요리되었고, 거주지 주변의 산과 바다, 들판에서 신선한 식재료를 구하여 마카오(馬告, 산호추), 츠충(刺蔥, 파) 등 각종 특별한 향신료를 사용해 특별한 맛을 더하였다. 그 후 16~17 세기에는 중국 푸젠(福建), 광둥(廣東) 지역에서 온 이주민들이 그들의 고향 요리를 전파했다. 푸젠 요리는 담백한 맛의 해산물탕이 특별하며, 광둥 요리는 소스를 잘 활용하고 정교한 칼질을 요리에 추구한다. 또한 이주민들은 토지를 개간하고 장거리 이동과정에서 절임 음식을 사용한 요리를 개발하였는데, 이는 오늘날 '하카 요리'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 후 50 년의 일본 통치 시기에는 일본 요리가 전해졌으며 맛과 소스의 선택이 점차 타이완 스타일로 변화하였다. 2차 세계 대전 이후에는 중국 각 지역에서 많은 이주민들이 타이완으로 유입되었다. 이주민들은 대부분 군인으로 췌촌(眷村, 군인마을)에 모여 살았으며, 전후 물자가 부족한 이 시기에 가장 안정적으로 공급된 수입 밀가루를 이용해 각종 면요리를 중심으로 하는 '췌촌 요리'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다양한 스타일의 요리들이 길고 긴 세월 동안 축적되고 상호작용하며 발전해 온 결과 오늘날 특색 있는 타이완 미식이 탄생하였다. 타이완 요리를 즐기는 가장 전통적인 방법은 가족, 친구들과 함께 둥근 테이블에 둘러앉아 시끌벅적하게 식사하는 것이지만 인원이 적다고 해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많은 타이완 음식점들이 1인 정식세트 메뉴를 출시하여 홀로 방문하더라도 타이완 미식을 충분히 즐길 수 있다.

원형테이블에 둘러앉아 즐기는

타이완 음식



A-1



A-2



A-3

A-1 평허에서 가장 대표 메뉴인 탕추루위(糖醋鱸魚)는 농어에 과일 풍미의 소스를 부어 달콤한 맛을 강조한다. A-2 진한 육수에 하카 쑤차이와 생선살이 어우러진 진판커자쑤탕위(金讚客家酸湯魚)다. A-3 향긋하고 매콤한 맛이 있는 족발 요리 장상펑웨이 주자오(醬香丰味豬腳)다.



B-2



B-1

커다란 둥근 테이블 위에 각종 요리가 풍성하게 차려지고 가족 또는 친한 지인과 친구들이 테이블에 둘러앉아 이야기꽃을 피운다... 결혼 피로연 풍속에서 비롯된 연회음식 문화에는 타이완 사람들의 손님에 대한 환대 정신이 잘 반영되어 있으며, 여러 가지 음식이 테이블에 오르면 여럿이 나눠 먹는 형식으로 손님들은 한 끼 식사 시간 동안 여러 음식을 다양하게 맛볼 수 있다. 아래에서 소개하는 연회음식을 제공하는 타이완 음식점은 3인 이상이 방문하기에 적합하며, 전통 타이완 스타일의 요리를 경험해 볼 수 있다.

MRT 송장난징역 근처에 위치한 '평허(丰禾)'는 타이완에서 널리 알려진 요식업 브랜드인 왕핀(王品) 그룹 산하의 음식점으로 전통 타이완 요리를 혁신적인 요리법으로 재해석하여 전통의 맛을 살리는 동시에 현대적인 요소를 가미하여 타이완 요리에 새로운 면모를 선보였다. 대표 메뉴인 농어 탕추루위(糖醋鱸魚)는 통째로 튀겨낸 농어에 과일 풍미의 소스를 부어 달콤한 맛을 강조한다. 족발 요리의 장상펑웨이 주자오(醬香丰味豬腳)는 여러 가지 향신료를 혼합하여 얼얼하면서도 향긋하고 매콤한 맛이 입안에서 어우러진다. 또한 이곳에서는 토란을 넣어 만든 돼지갈비찜 요리인 위상편정파이구(芋香粉蒸排骨)와 진한 육수에 하카 쑤차이와 생선살이 어우러진 진판커자쑤탕위(金讚客家酸湯魚) 등 전통 타이완의 맛을 보여주는 요리들도 즐길 수 있다.

타이완 요리로 역사가 깊은 '마오위엔(茂園)'은 수십 년간 전통 조리법을 고수할 뿐만 아니라, 옛 맛을 그대로 유지하여 전통 타이완 요리를 맛볼 수 있는 최고의 음식점으로 꼽힌다. 그중에서도 화즈완 빙 샤첸(花枝丸拼蝦捲)은 오징어 페이스 트로 만든 탱글탱글한 오징어 완자 튀김과 채소, 새우를 넣어 만든 롤튀김이 어우러진 요리로 신선한 맛을 자랑한다. 바이차이루(白菜滷)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요리로 여러 식재료를 각각 기름에 볶은 후, 데친 배추와 함께 깊은 맛이 나도록 약불에서 천천히 끓여낸 요리이다. 바이잔지(白斬雞)는 장시간의 노력이 필요한 또 하나의 미식으로 당일 새벽에 잡은 신선한 생닭을 그 신선함이 가시기 전에 조리하여 닭고기의 가장 좋은 풍미를 경험할 수 있다.

이란(宜蘭) 지역에서 유래한 '진심타이차이(真心台菜)'는 현지 식재료인 란양평야의 풍성한 농산물을 활용한 요리를 선보이며 전통 타이완 요리에 이란 현지 특색을 반영하였다. 명절 때만 먹을 수 있었던 전통요리인 룡펑퇴(龍鳳腿)는 겉모습은 닭다리처럼 생겼지만 속재료는 돼지고기, 다진 양파, 다양한 향신료로 만들어졌다. 가정 식탁에 자주 오르는 차이푸단(菜脯蛋) 이란산 단무지에 절여져 한 입에 넣으면 냄비의 향기가 가득하다. 이 밖에도 같은 이란 고유의 대추로 만든 자오빙(棗餅), 닭육수에 옥수수 전분 등을 섞어 튀겨낸 까오자(糕渣) 등 간식들도 맛볼 수 있다. 식사를 마치면, 음식점에서는 이란 특산품인 대추를 설탕에 쪄낸 진자오미젠(金棗蜜饯)을 제공하는데, 새콤달콤한 맛이 느끼함을 없애주어 식사의 완벽한 마침표를 찍을 수 있다.

B-1 바이잔지(白斬雞)는 당일 새벽에 잡은 신선한 생닭을 그 신선함이 가시기 전에 조리한다. B-2 화즈완 빙 샤첸(花枝丸拼蝦捲)은 오징어 완자 튀김과 채소, 새우를 넣어 만든 롤튀김이 어우러진 요리다.



룽펑퇴 (龍鳳腿)

차이푸단 (菜脯蛋)

카오자 (糕渣)



A 핑허 幸禾

Add 타이베이시 중산구 난징동로 2 단 146 호 2F
(台北市中山區南京東路二段 146 號 2F)

Open 평일 11:30-14:30, 17:30-22:00,
주말 11:00-14:30, 17:00-22:00

Access MRT 중허신루 (中和新蘆) 선 / 송산신덴 (松山新店線) 선 송장난징 (松江南京) 역 5번 출구에서 도보로 30 초 소요

Web www.vegetable.com



B 마오위엔 茂園 Mao Yuan

Add 타이베이시 중산구 청안동로 2 단 185 호
(台北市中山區長安東路二段 185 號)

Open 화 ~ 일 11:30-14:00, 17:30-20:30,
매주 월요일 휴무

Access MRT 원후 (文湖) 선 / 송산신덴 (松山新店) 선 난징푸싱 (南京復興) 역 2 번 출구에서 도보로 5 분 소요

Web www.maoyuan.tw



C 전신타이차이 真心台菜

Add 타이베이시 송산구 푸싱남로 1 단 39 호 GF
(台北市松山區復興南路一段 39 號 GF) 브리즈 센터 (微風廣場)

Open 월 ~ 목 11:30-14:30, 17:30-21:30,
금 11:30-14:30, 17:30-22:00,
토 11:30-15:00, 17:30-22:00,
일 11:30-15:00, 17:30-21:30

Access MRT 원후 (文湖) 선 / 반난 (板南) 선 종자오 푸싱 (忠孝復興) 역 5 번 출구에서 도보로 8 분 소요

Web www.facebook.com/Fuxingtrulycuisine/

혼자서도 먹을 수 있는 정식 메뉴



B 스시에서 대표 메인 요리인 이란시루 홍샤오 스프터우(宜蘭西魯紅燒獅子頭)는 깊고 진한 맛을 가진 타이완산 돼지고기로 만든 완자 요리다. C 용신평차는 타이완 차 음료, 차 디저트와 함께 현대적인 형태의 다관 문화도 전파하고 있다.

현대사회의 빠른 생활 속도에 맞춰 여행과 식사 형태도 변화하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나홀로 여행과 혼밥을 선호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많은 타이완 음식점들은 알찬 구성의 1인 정식 메뉴를 앞다투어 선보이고 있다. 이러한 음식점들은 여럿이 함께 식사하는 타이완의 전통적인 연회음식과 달리, 음식의 양과 조합에 주의를 기울이며 공간적인 측면에서도 적은 인원의 손님들과 혼밥러들에게 편안한 식사 분위기를 제공하고 있다. 인원수에 상관없이 전통 타이완 요리들이 선사하는 맛의 향연을 즐겨보자.

디화계에 있는 '다오서(稻畝)'는 백 년 된 고옥에 자리하고 있으며, 타이완 요리를 1인 정식 형태로 선보인 선구자 중 하나다. 창립자 가문은 대대로 쌀가게를 운영해왔으며, 현재는 쌀가게 운영을 접었지만 쌀에 대한 정성과 사랑을 요리로 이어가고 있다. 타이중 우펑(霧峰)에서 생산되는 위상쌀과 디화계 현지 식재료 사용을 고집하며 전통 타이완 요리를 혁신하고 재해석한 요리를 선보이는 이곳에서는 하수오, 감초, 대추 등 각종 한방 약재를 넣어 만든 닭고기탕을 메인 요리로 하는 서우우 야오산지탕 정식(首烏藥膳雞湯客飯)과 흰새우 튀김볼을 메인 요리로 한 진사샤슈 정식(金沙蝦球客飯) 등의 알찬 세트 메뉴를 제공하고 있다.

타이베이 청핀생활 난시점에 입점한 '스시(食習)'는 타이완 로컬푸드 슈퍼마켓인 선농생활(神農生活) 안에 위치하고 있다. 식사 공간이 넓고 환하며, 주변의 중산상권과 마찬가지로 합한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이곳에서는 타이완 가정식을 테마로 한 1인 정식을 선보이고 있다. 대표 메인요리인 이란시루 홍샤오 스프터우(宜蘭西魯紅燒獅子頭)는 타이완 생돼지고기로 만든 완자와 배추를 약불에서 천천히 끓인 요리로 깊고 진한 맛을 느낄 수 있다. 다자위터우 하이센젠저우(大甲芋頭海鮮鹹粥)는 새우와 조개가 가득하며 부드러운 토란과 알갱이가 살아있는 짭조름한 죽으로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해준다. 정식 메뉴 외에도 미숫가루와 우유가 만난 멘차뉴나이(麵茶牛奶), 아몬드차 싱런차(杏仁茶) 등의 타이완 전통음료도 함께 맛보자.

가오슝에서 처음 문을 연 '용신평차(永心鳳茶)'는 타이완 전역에 매장들이 분포하고 있으며, 복고적이면서도 트렌디한 매장 분위기를 자랑한다. 이곳은 새로운 시각에서 타이완 요리를 재해석하여 전통 타이완 요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으며, 타이완 차 음료, 차 디저트와 함께 현대적인 형태의 다관 문화도 전파하고 있다. 1인 정식은 간단한 반찬과 탕이 포함되며, 메인 요리는 선택지가 다양하다. 오징어와 쌀국수가 어우러진 샤오첸 미판탕(小卷米粉湯), 돼지갈비 죽순밥인 파이구 셴취추이판(排骨鮮筍炊飯)은 타이완 고유의 맛을 선사하며, 발효두부에 재워 부드럽고 고소한 맛을 더한 닭고기 튀김 떠우루지(豆乳雞), 고구마로 만든 쫄득한 디과츄(地瓜球) 등의 타이완식 간식도 주문해서 맛볼 수 있다.



A-1



A-2

A-1 상카오우즈위(香烤午仔魚)는 생선 육질이 부드럽고 기름기가 많으며 가시가 적어 일등 최고의 해물로 손꼽힌다. A-2 한방 약재를 넣어 만든 닭고기탕을 메인 요리로 하는 서우우야오산지탕 정식(首烏藥膳雞湯客飯)이다.



C

B-1 스시는 에서는 타이완 가정식을 테마로 한 1인 정식을 선보이고 있다.



A 다오서스관 稻舍食館
 Web www.rice1923.com

디화점 迪化店

Add 타이베이시 다둥구 디화제 1 단 329 호
 (台北市大同區迪化街一段 329 號)

Open 월 ~ 일 12:00-21:00

Access MRT 다차오터우 (大橋頭) 역 1A 출구에서 도보로 5 분 소요

브리즈 신이점 微風信義店

Add 타이베이시 신이구 중샤오둥로 5 단 68 호 4 층
 (台北市信義區忠孝東路五段 68 號 4F)

Open 일 ~ 월 11:00-21:30, 금, 토 11:00-22:00

Access MRT 타이베이 시청 (市政府) 역 3 번 출구

C-1 용신평차는 타이완 차 음료, 차 디저트와 함께 현대적인 형태의 다관 문화도 전파하고 있다.



B 스시 食習 Have a Seat
 타이베이 청핀생활 난시점 (台北誠品生活南西店)

Add 타이베이시 중산구 난징서로 14 호 4F
 (台北市中山區南京西路 14 號 4F)

Open 일 ~ 월 11:00-21:30, 금, 토 11:00-22:00

Access MRT 중산 (中山) 역 4 번 출구에서 도보로 1 분 소요

Web www.facebook.com/have.a.seat.tpe/



C 용신평차 永心風茶
 IG @yonsinfengcha

신광 난시점 新光南西店

Add 타이베이시 중산구 난징서로 15 호 3F
 (台北市中山區南京西路 15 號 3F)

Open 일 ~ 월 11:00-21:30, 금, 토 11:00-22:00

Access MRT 중산 (中山) 역 4 번 출구에서 도보로 1 분 소요

브리즈 신이점 微風信義店

Add 타이베이시 신이구 중샤오둥로 5 단 68 호 3F
 (台北市信義區忠孝東路五段 68 號 3F)

Open 일 ~ 월 11:00-21:30, 금, 토 11:00-22:00

Access MRT 타이베이 시청 (市政府) 역 3 번 출구

썬사

역사, 인문 그리고 자연과의 만남

글 / 장지린 (張芷菱) 사진 / 정보워 (陳伯瑋), Vision Create, 각 상점 제공



三 峽 老 街

싼샤 라오제 예술 풍경

고적으로 지정된 싘샤 청수조사묘(三峽清水祖師廟)는 18 세기와 19 세기에 지진과 전쟁으로 인해 심각하게 훼손된 적이 있다. 2 차 세계대 전이 끝나고 공공 소유로 반환된 후에야 해외에서 미술을 공부하고 당시 싘샤거리 대표로 활동하던 현지 예술가 리메이슈(李梅樹)가 세 번째 재건 계획을 주도하게 되었다. 리메이슈는 타이완의 현지 예술가와 각계각층의 전문가를 복원 프로젝트에 참여시켰을 뿐만 아니라 스케치 디자인에 완벽히 할 것을 요구하며, 벽화와 석조 기둥의 일부는 리메이슈가 직접 디자인하는 등 재건 프로젝트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완성된 조사묘는 현지의 신앙 중심지였을 뿐만 아니라 정교한 지붕장식공예로 유명해졌으며 ‘동방 조각예술의 전당’이라고도 불리고 있다.

예술을 사랑한 리메이슈는 평생동안 많은 그림과 원고를 남겼으며, 그가 세상을 떠난 후 리메이슈의 후손들은 그를 위해 리메이슈기념관(李梅樹紀念館)을 설립하여 리메이슈의 평생 창작 궤적과 작품을 수집하여 전시하고 있다. 초기에 연습한 친필 원고와 그 자체로 하나의 작품인 조사묘 설계도 초안, 중기의 서양 화풍과 유사한 유화 작품, 후기의 향토 인문을 묘사한 사실적인 풍속화 작품까지 다양한 작품들이 이곳에 전시되어 있다. 기념관은 매년 3, 4 월 정기적

으로 ‘메이슈의 달’을 개최하여, 타이완 현지 예술가들 또는 다른 업계와 협업해서 타이완 향토 예술을 주제로 타이완적인 색채가 강한 다양한 유형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작품을 통해 싘샤의 예술적인 분위기를 더한 사람은 서민미술관(庶民美術館)의 창립자 우관더(吳冠德)이다. 벽돌을 던져 구슬을 끌어들이듯이 자신의 미숙한 의견을 내어놓아 싘샤 출신의 사람들이 고향을 생각하는 마음을 갖기를 희망한다. 서민미술관은 라오제의 수백 년 된 집들 사이에 숨어 있으며, 특별하게 둥근 창문과, 짙은 파란색 현관문만으로도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과거에 자신의 가족이 살았던 오래된 집을 개조하기로 했다. 관내 작품은 주로 대자연을 주제로 하고 있으며, 특히 주목할 점은 푸르름이 가득한 안뜰과 측면의 붉은 벽돌 통로로, 마치 시간의 회랑처럼 당시 가족 구성원과 할아버지의 삶의 흔적을 남겨놓은 듯하다. 미학은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생활 속에 녹아들어야 한다고 믿는 우관더는 2 층 예문 카페를 초록 식물로 가득 채웠을 뿐만 아니라, 메뉴판 또한 나뭇잎으로 만들어 교외의 아늑함과 푸르름을 느낄 수 있다.



A 완성된 조사묘는 현지의 신앙 중심지였을 뿐만 아니라 정교한 공예로 유명해졌다.

A 싘샤청수조사묘 三峽清水祖師廟

Add 신베이시 싘샤구 장푸제 1호
(新北市三峽區長福街1號)

Open 05:00-22:00

B 리메이슈기념관 李梅樹紀念館

Add 신베이시 싘샤구 중화로 43항 10호
(新北市三峽區中華路43巷10號)

Open 주말 10:00-17:00 **Ticket** NTD\$100

FB facebook.com/limeishu.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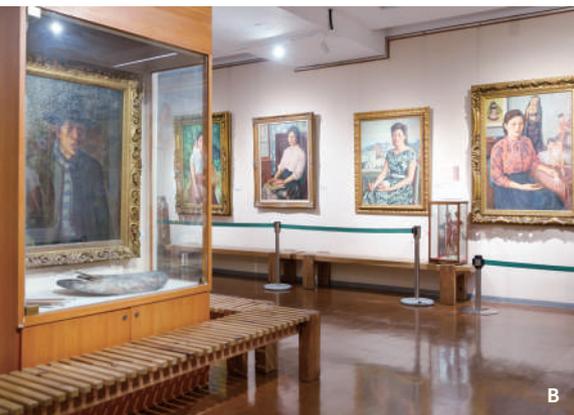
C 서민미술관 庶民美術館

Add 신베이시 싘샤구 민첸제 110호 (新北市三峽區民權街110號)

Open 목요일부터 일요일 12:00-18:00, 매주 월화수 휴무

Ticket NTD\$30, 미술관 내 소비 공제 가능

FB facebook.com/SuChiungArtMuseum



B



C

B 리메이슈기념관은 리메이슈의 평생 창작 궤적과 작품을 수집하여 전시하고 있다. C 서민미술관은 2층 예문 카페를 초록 식물로 가득 채웠을 뿐만 아니라, 예술가 겸 미술관 창립자인 우관더의 작은 작품들을 여기에 도볼 수 있다.



A 진뉴자오빵의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우며, 독특하고 진한 우유 풍미와 다양한 맛으로 남녀노소 인기 만점이다.

현지 공방 체험하기



싼샤 라오제 대부분의 양옥 건물이 당시의 상호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그중 자주 등장하는 ‘염색(染)’이라는 단어는 과거의 남염(藍染) 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초창기 싼샤는 당시 타이완 북부 지역에서 극히 드문 염색 거리였다. 이곳은 수질이 좋아 염료용 풀이 잘 자라며, 현지인들은 이를 염료로 삼아 복잡한 염색 절차를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여 수출하였다. 염색 산업은 한동안 번창하다가, 후에 서양식 의류 붐이 일고 유행하면서 점점 쇠퇴하게 됐다. 현재 남염 기술은 지역 주민들의 공동 노력으로 전통 기술을 적극적으로 보존하고 있다. 싼샤염색공방(三峽染工場)은 이 문화를 보존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공방은 염색하는 남염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싼샤 사람들이 이 공예를 계승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DIY 체험 과정도 진행하여 학교의 교외 수업, 외국 관광객의 문화 교류 혹은 단순히 남염에 관심이 있는 타이완 관광객들도 이곳에 와서 실제로 자신만의 작품을 제작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주목할 만한 점은 매년 7월부터 8월까지 싼샤라오제에서는 성대한 ‘싼샤 남염축제’가 개최된다는 점이다. 라오제 전체가 남염

된 천으로 장식되어 청색과 백색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화면을 연출하여 남염의 예술 세계로 걸어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을 준다.

색다른 핸드메이드 체험을 원한다면 싼샤자오팡진뉴자오(三峽角胖金牛角) 클래스를 신청해 보자. 싼샤의 진뉴자오빵(금소뿔빵)은 이 지역을 대표하는 특산품이자 관광객들이 꼭 사야 하는 기념품 중 하나다. 빵의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우며, 독특하고 진한 우유 풍미와 다양한 맛으로 남녀노소 인기 만점이다. 진뉴자오빵은 싼샤에서 유래된 것으로 수제 면피를 제조하며 면피를 겹겹이 쌓아 크림, 수유와 치즈를 넣어 빵에 풍부한 향을 더하는 등 세심한 공정을 통해 완성된 빵이다. 현장 구매 외에도 싼샤에서는 수제 뉴자오빵 체험 수업을 제공하여 어린이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이 행사에 참여하면 직접 자신만의 뉴자오빵을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빵 제조의 기초 지식을 배우고 제빵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완성된 갓 구운 빵은 집에 가져갈 수 있어, 세상에 하나뿐인 완성품을 친구나 가족과 함께 맛볼 수 있다.



B 남염문화를 보존하기 위해 남염 공방은 남염 교육 과정을 개설한다.

A 싼샤 자오팡진뉴자오 - 구정점
三峡角胖金牛角 - 古井店

Add 신베이시 싼샤구 민첸제 37 호 (新北市三峡區民權街 37 號)

Open 08:00-20:00

FB facebook.com/horns0615 (페이스북북을 통해 예약)

B 싼샤염색공방 남염전시센터 三峡染工坊 藍染展示中心

Add 신베이시 싼샤구 중산로 20 항 3 호
(新北市三峡區中山路 20 巷 3 號)

Open 평일 10:00-17:00, 주말 10:00-18:00, 매주 화요일 휴무

FB facebook.com/sanxia.indigo.dyeing (페이스북북을 통해 예약)



B-1 원하는 무늬가 나타날 때까지 천을 묶는다. B-2 흰 천을 염색용액으로 3분 이상 반복 염색한 후 짜내어 꺼내어 공기와 접촉시켜 산화시킨 후 다시 염색탱크에 담근다. B-3 염색을 약 3회 반복한 후 고정된 부분을 모두 풀어 햇볕에 말린다.



B-1



B-2



B-3

A 위엔산에서는 산사 전경을 내려다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날씨가 맑을 때는 단수이강과 타이베이 지역까지 멀리 바라볼 수 있다.





A-1

자연에서 힐링받기

예술과 인문의 소양 외에도 싘샤는 산과 물가에서 휴식을 취하기에 좋은 곳이기도 하다. 위엔산(鳶山)은 싘샤 지역을 대표하는 산으로 고도가 낮고 주변 풍경이 아름다워 최근 몇 년 사이 등산객의 필수 방문지로 자리 잡았다. 싘샤라오제의 끝에서 위엔핑로를 따라 걷다 보면 위엔산 대종과 위엔산 등단로 입구가 보인다. 하이킹 코스를 따라 산을 오르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위엔산엔이다. 이곳에서는 싘샤 전경을 내려다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날씨가 맑을 때는 단수이강과 타이베이 지역까지 멀리 바라볼 수 있다. 매년 4, 5월에 방문하면 오동나무 꽃이 만개해서 눈처럼 하얀 꽃잎이 산길을 가득 덮는 아름다운 광경을 볼 수 있다. 위엔산엔을 지나 우스핀산의 이정표 방향으로 계속 가다 보면 많은 사람들의 목적지인 위엔산채벽에 도착한다. 넓게 노출된 화려한 색채의 산벽은 많은 사진작가를 끌어들이는 뿐만 아니라 많은 관광객이 특별히 찾아와 인증 사진을 찍곤 한다. 전체적으로 위엔산 산책로는 걷기 좋은 편이지만, 등산객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정자가 곳곳에 있어 지치더라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B-2

등산 애호가라면 타이완에서 희귀한 저고도 아열대 우림이 있는 따반건 삼림 휴양지(大板根森林遊樂區)도 방문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곳에는 600여 종의 식물이 보존되어 있으며,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은 따반건 나무 무리다. 이 나무들의 얽히고설킨 뿌리들은 자연의 독창성에 감탄하게 만드는 독특한 자연 경관을 만들어 낸다. 이 산책로는 타이완에만 있는 독특한 동식물을 자주 볼 수 있어, 자연 애호가와 사진 애호가들에게 천국과도 같은 곳이다. 공원에는 따바오 현수교(大豹吊橋)가 있는데, 이를 통해 따바오 시내를 건너 마치 열대 우림 탐험에 나서는 듯한 느낌을 준다. 따반건 숲 옆에는 온천 리조트도 있어 산과 숲에서 조용한 하루를 보낸 후 온천을 즐기기에 안성맞춤이다. 아름다운 산의 풍경이 주는 고요함과 편안함을 즐기며 자연의 품에서 편안한 밤을 보내보자.

A 싘샤위엔산풍경구 三峽鳶山風景區

Add 신베이시 싘샤구 위엔핑로 (新北市三峽區鳶峰路)

B 따반건 삼림 휴양지 大板根森林遊樂區

Add 신베이시 싘샤구 차차오리 차차오 79 호 (新北市三峽區插角里插角 79 號)

Access 싘샤귀사오(三峽國小) 역에서 버스 807 번 탑승 후 차차오(따반건) (插角(大板根))역 하차 도보약 300 미터

Web thegreatroots.com/en/

A-1 라오제의 끝에서 위엔핑로를 따라 걷다 보면 위엔산이 보인다. **B-1** 따반건 삼림 휴양지 옆에 있는 따반건 온천 호텔은 여기서 입주하면 온천도 즐길 수 있다. **B-2** 공원에는 따바오 현수교가 있는데, 이를 통해 따바오 시내를 건너 마치 열대 우림 탐험에 나서는 듯한 느낌을 준다.

‘타이완에서 한잔 하세요’ 시리즈

타이완 차 편

글 / 리젠수(李建樹) 사진 / Vision Create, 각 가게 제공

타이완차는 전 세계적으로 좋은 평판을 받고 있으며 가장 대표적인 특산품으로 타이완의 북부, 중부, 남부, 동부에 차 농장들이 있다. 각 지역의 차는 재배 지역의 해발 기후와 토양 조건에 따라 맛과 향이 다르며 100년 이상의 차제조 역사를 자랑하고 있다. 다양한 풍미를 가지고 있는 타이완 차를 음미해보는 특별한 미각여행을 떠나 보자.

스타일리쉬한 차석 (茶席)

차석 문화는 동양 차도의 정수로, 타이베이에는 전통 차도를 현대 미학으로 새롭게 해석하여 차 애호가들에게 신선한 경험을 선사하는 독특한 매력의 티 살롱(Tea Saloon)이 있다.

이 티 살롱은 다안구의 조용한 골목에 위치해 있으며, 건물 1층은 세계 각국의 문구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편집숍이고, 2층으로 올라가면 단 6개의 좌석만 있는 ‘후포차위엔(琥珀茶苑, Liquide Ambré)’을 만날 수 있다. 주인은 본업이 디자이너로 공간 설계, 실내 인테리어, 차 포장, 찻잔과 같은 모든 요소에 세심한 신경을 기울였다. 빈티지하면서도 세련된 인테리어는 이곳을 전통적이고 고루한 차관의 이미지에서 완전히 탈피하여 마치 카페나 바에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가게주인은 젊은 층도 차의 매력을 알게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차석이라고 하나 전체적인 분위기는 전혀 딱딱하지 않으며, 티 소믈리에의 안내에 따라 손님들은 자유롭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게다가 이곳의 소비 가격은 일반 카페와 크게 다르지 않아, 개업 이후 많은 젊은 층을 끌어모아, 인스타에서 유명한 인증샷 명소가 되었다. 제공되는 차 종류로는 비리춘(碧螺春), 동방미인(東方美人), 고산 우롱차, 꿀향 홍차 등이 있으며, 차 외에도 이곳의 인기 디저트인 수제 땅콩 두부는 꼭 맛보아야 한다.

A 후포차위엔 琥珀茶苑, Liquide Ambré

Add 타이베이시 다안구 러리로 72호 15호 2층 (台北市大安區樂利路 72巷 15號 2樓)

Open 12:00-19:00, 월요일 휴무

Access MRT 류장리 (六張犁)역 출구에서 도보로 약 5분 소요

A 후포차위엔에서는 전문 티 소믈리에의 안내를 있기 때문에 손님들은 차석에 자유롭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우아한 차관에서 티타임

따다오청(大稻埕)의 오래된 골목길을 거닐다 보면, 고풍스러운 붉은 벽돌 건물들이 오래된 역사의 흔적을 품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 시대의 기억이 가득한 거리에서 서로 길 하나로 마주 보며 위치한 두 개의 개성 넘치는 차관이, 타이베이 오래된 이야기를 조용히 들려준다.

‘난제이더이(南街得意)’는 수공예품을 판매하는 민이청(民藝埕)의 2층에 자리 잡고 있다. 1920년대의 인테리어 스타일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어 조각이 새겨진 나무 의자에 앉아 고풍스러운 나무 창문을 통해 밖을 내다보면, 거리 풍경과 차 향기가 어우러져 섬세한 한 폭의 그림 같은 풍경을 만들어낸다. 이곳에서는 동양차와 서양차를 모두 선택할 수 있으며,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 직원이 먼저 메뉴와 다양한 차 잎이 담긴 차통을 가져다주면 향을 맡아본 뒤 원하는 차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모든 차는 간단한 다과와 함께 제공되며, 다과는 증식과 양식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용러춘핑차관(永樂春風茶館)’ 역시 2층에 자리하고 있으며, 우연히도 1층은 수공예품 가게다. 따다오청의 차관들은 대체로 복고적이고 향수를 자극하는 스타일을 공유하고 있다. 오래된 공간과 가구는 공통된 요소이지만, 이곳은 여기에 한층 더한 옛 시대의 모던함을 담고 있다. 가게에서는 타이완 차뿐만 아니라 혼합된 꽃차와 과일차도 제공하며, 특별한 점은 간단한 다과 외에 배를 든든히 채울 수 있는 루리우판(滷肉飯)과 귀바오(刈包) 세트 메뉴도 있다.

‘타이완에서 한잔 하세요’ 시리즈

차, 술, 커피는 타이완 사람들의 일상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음료로 최근에는 타이완의 특산품을 대표하는 대명사가 되었으며, 많은 국제 관광객들이 이를 위해 타이완을 방문하기도 한다. 이번 ‘타이완에서 한잔 하세요’ 시리즈의 첫 주제는 타이완 차를 주제로 하여 독자들을 차관, 차판매점, 차 바(tea bar)로 안내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타이완 차 문화를 체험하고자 한다.

B 난제이더이 南街得意

Add 타이베이시 다둥구 디화제 1 단 67호 2층
(台北市大同區迪化街一段 67號 2樓)

Open 10:30-18:30

Access MRT 베이먼(北門)역 출구에서 도보로 약 4분 소요

C 용러춘핑차관 永樂春風茶館

Add 타이베이시 다둥구 디화제 1 단 82호 2층
(台北市大同區迪化街一段 82號 2樓)

Open 12:00-18:00

Access MRT 베이먼(北門)역 출구에서 도보로 약 4분 소요



B



C-1



C-2

B 난제이더이에는 직원이 먼저 메뉴와 다양한 차 잎이 담긴 차통을 가져다 주면 향을 맡아본 뒤 원하는 차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C-1 용러춘핑차관에 티 소믈리에의 안내에 따라 손님들은 자유롭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C-2 타이완 차뿐만 아니라 혼합된 꽃차와 과일차도 제공한다.



오랜 전통의 차 상점 탐방하기

타이베이의 오래된 도심 지역에는 이 도시의 변화를 함께 해 온 오래된 차 상점들이 자리하고 있다. 이곳들은 단순한 차를 파는 상점이 아니라, 타이베이의 차 산업 역사와 함께 소중한 차 문화 유산을 전승하고 있는 공간들이다.

‘전웨이차위안 (臻味茶苑)’에 들어서면 오래된 건물이 지닌 역사적 흔적들이 느껴진다. 이곳은 다따오청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 건축물로 1851년에 지어진 건물이다. 이 역사적인 공간에 입점한 차 상점의 주인은 잉거 (鶯歌) 출신으로 타이완 차 덩는 분야의 명인이다. 이곳에서 판매되는 타이완 차는 자연 농법으로 재배한 농가와 계약한 찻잎을 원료로 하며, 자체적으로 덩여서 완성된다. 역사적인 건물 안에서 주인이 직접 우려낸 차를 맛보면 그 풍미가 더욱 특별하게 느껴질 것이다.

6대째 이어져 온 ‘푸다통차주양 (福大同茶莊)’은 타이완 차 산업의 살아있는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845년에 설립된 푸다통은 한의학을 기반으로 하여 타이베이에서 가장 먼저 개발된 지역인 완화 (萬華)에 차 상점을 열었는데 이는 이 지역 최초의 차 상점이기도 하다. 180년 역사를 자랑하는 이 오래된 상점은 전통적인 차 제조 공정을 고수하며 그들만의 전통적인 방법으로 차를 덩고 숙성시키는 방식으로 더욱 깊고 풍부한 차 향을 만들어 낸다. 가게 안에는 많은 희귀한 오래된 차가 보관되어 있어 차를 사랑하는 이들에게 보물창고 같은 곳이다.

B-1 지역 최초의 차 상점인 푸다통차주양(福大同茶莊)은 타이완 차 산업의 살아있는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B-2 타이베이의 차 산업 역사와 함께 소중한 차 문화 유산을 전승하고 있는 공간이다.



A-1



A-2

A-1 역사적인 건물 안에서 타이완 차 덩는 분야의 명인인 전웨이차위안의 주인이 직접 우려낸 차를 맛보면 그 풍미가 더욱 특별하다. A-2 전웨이차위안에서 판매되는 타이완 차는 자연 농법으로 재배한 농가와 계약한 찻잎을 원료로 한다.

A 전웨이차위안 臻味茶苑

Add 타이베이시 다통구 디화제 1단 156호
(台北市大同區迪化街一段 156號)

Open 11:00-20:00

Access MRT 베이먼 (北門)역 출구에서 도보로 약 13분 소요

B 푸다통차주양 福大同茶莊

Add 타이베이시 완화구 궈양제 2단 196호
(台北市萬華區貴陽街二段 196號)

Open 10:00-19:30

Access MRT 시먼 (西門)역 출구에서 도보로 약 15분 소요



B-1



B-2

타이완 차와 술의 만남

최근 타이베이의 카페 업계에서는 타이완 차를 활용한 창의적인 바람이 불고 있다. 동양 차의 풍미와 서양 칵테일 기술을 절묘하게 융합해 독특한 미각을 선사하고 있다.

“Trio 삼중주 (Trio 三重奏)”는 “타이완 칵테일의 대부”라 불리는 왕링안 (王靈安) 이 설립한 바이다. 첫 번째 Trio 는 2009 년에 설립되었고, 현재는 Trio 삼중주, Trio Bitters, 그리고 2021 년에 개업한 Trio Kitchen 까지 세 곳의 레스토랑 바를 운영하고 있다. Trio 는 차와 칵테일의 결합을 선도한 바이며, 대표적인 메뉴인 ‘얼그레이 티 칵테일’은 단골들이 반드시 주문하는 인기 메뉴다. 얼그레이 티와 보드카를 조합하고 레몬과 금귤을 더해, 진한 술맛 속에 감귤류 특유의 향기와 살짝 새콤달콤한 맛을 느낄 수 있다. 이 칵테일은 10 년 넘게 꾸준히 사랑받고 있다.

용강 (永康) 상권 남쪽, 허핑동로 (和平東路) 와 칭텐제 (青田街) 일대는 한적하고 여유로운 분위기로 골목 곳곳에 개성 있는 가게들이 자리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25 향 차천 레스토랑 바 (貳拾伍響 茶川餐酒)’다. 이곳은 난터우 (南投) 에서 직접 재배한 차잎을 칵테일에 활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예를 들어, 타이완산 파인애플과 사계춘차 (四季春茶) 를 결합한 ‘싱화춘 (杏花村)’은 마치 과일차를 마시는 듯 새콤달콤한 맛이 특징이다.

칵테일 외에도 이곳은 일반적인 바보다 더 다양한 음식을 제공한다. 특히 차 향이 가미된 루웨이 (滷味) 모듬은 꼭 한 번 시도해볼 만한 메뉴다.



C-1

C-1 싱화춘 외에도 난터우 루구 (鹿谷) 산 우롱차를 엄선하여 특수 처리 후 풍부하고 달콤하며 부드러운 맛을 내고 계화 향 가득한 계화 우롱차 칵테일 (桂花烏龍茶酒)이다. D-1 홍위사과 칵테일 (紅玉蘋果)은 보드카를 베이스로 하여 타이차 18호 홍차의 차향을 신선한 사과와 결합하여 사과의 단맛과 홍차의 향을 내는 특색 칵테일이다.



D-1



C



D

C 25 향 차천 레스토랑 바 貳拾伍響 茶川餐酒

Add 타이베이시 다안구 허핑동로 1단 141항 7-2호 (台北市大安區和平東路一段141巷7-2號)

Open 17:00-00:30, 화요일 휴무

Access MRT 중사오신성 (忠孝新生)역 출구에서 도보로 약 7분 소요

D Trio 삼중주 TRIO 三重奏

Add 타이베이시 다안구 둔화남로 2단 63항 54농 12호

(台北市大安區敦化南路二段63巷54弄12號)

Open 18:00-00:00, 일요일 휴무

Access MRT 신이안허 (信義安和)역 출구에서 도보로 약 5분 소요

D Trio bitters

Add 타이베이시 중정구 중사오동로 2단 64항 4호 (台北市中正區忠孝東路二段64巷4號)

Open 18:00-01:00, 월요일 휴무

Access MRT 중사오신성 (忠孝新生)역 출구에서 도보로 약 5분 소요

난터우에서 맛보는 차와 커피

글·사진 / 청지동 (陳志東)

난터우는 타이완에서 유일하게 바다와 인접하지 않은 지역이지만 타이완에서 가장 높은 산인 위산, 눈이 내리는 허환산, 산 위의 가장 큰 호수인 르웨탄, 그리고 타이완에서 가장 긴 하천인 쥐웨이강'의 발원지 등 타이완의 명소가 많이 있다. 또한 난터우는 타이완에서 가장 중요한 동당 우롱차와 홍차의 생산지면서 커피, 난초, 버섯, 마, 죽순, 바닐라, 패션프루트 등이 유명하다.

타이완에서 차를 맛보고 싶다면 난터우 위즈향 르웨탄에서 시작하는 것을 추천한다. 아름다운 풍경과 편리한 각종 숙박시설 외에도, 다양한 품종의 차와 커피가 있으며 꽃향, 과일향, 탄배(炭焙, 숯불) 향의 미식체험으로 입안을 가득 채울 수 있다.

르웨탄은 아름다운 경치를 자랑하고 있으며, 타이완의 우수한 커피와 홍차를 배양하고 있다.



1 새벽 아침에 난터우의 차밭에 들어가서 차 농민들이 차잎 따는 것을 보면, 늘 눈분신 햇빛과 고산 경치의 아름다움이 있다. 2 '일심이엽(一心二葉)'라는 단어는 보통 이렇게 생겼다. 차잎에서 새싹이 난 지 얼마 안 된 부분인데, 이 부분은 향이 가장 풍부하고 식감이 가장 달다.

4 대 차나무 품종과 아름다운 호수 풍경 타이완 고품질 홍차

홍차는 설탕이나 우유 또는 버블을 추가하여 타이완식 버블 밀크티로 만들기에 적합하지만, 고품질 르웨탄 홍차를 이렇게 마시는 것은 조금 유감스러운 일이다. 르웨탄 홍차의 대부분은 타이완 현지 차 제조 기술을 사용하는데 여린 잎을 따서 말아 발효시키고, 말리는 등의 복잡하고 까다로운 제조과정을 거친다. 찻잔을 들어올리면 기분 좋은 꽃향과 과일향이 나므로 물에 우려낸 후 설탕이나 우유를 추가로 넣을 필요가 없다. 한 모금 마시면 목 안까지 달콤함이 느껴지고, 때로는 10 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입안에 열은 향이 남아있다.

홍차가 이런 풍미를 갖을 수 있는 데에는 차나무의 품종과 재배 환경 그리고 타이완의 차 제조 기술의 이유를 들 수 있다.

르웨탄 홍차는 타이완 자생 동백나무, 아쌈 홍차, 타이완차 18 호, 타이완차 21 호 등 크게 4 가지 품종으로 나뉜다. 자생 동백나무는 타이완 고유종으로 홍차로 만들면 매우 독특한 버섯 맛이 나기 때문에 '차 중의 트러플'이라고 불리운다. 그 후 타이완 차 산업 개량연구소에서 미얀마의 버마(Burma) 대엽차나무와 교배하여 50 년 이상 재배한 끝에 마침내 1999 년에 '타이완차 18 호'라는 이름을 붙여 출시했다. 이 차는 박하와 계피 향이 나고 찻물은 선명한 붉은색으로 표면에는 금속 고리모양의 빛을 띄며 달콤하고 부드러운 맛이 난다.

아쌈 홍차는 약 100 년 전 일본 정부가 인도에서 들여온 품종으로 르웨탄 주변에서 재배하고 홍차로 만들며 맥아향과 과일향, 나무향을 띤다. 차 산업 개량연구소는 나중에 이를 사용하여 중국 치먼(祈門)의 차나무와 교배하여 새로운 품종을 만들어 2008 년에 '타이완차 21 호'라는 이름을 붙여 출시하였다. 감귤유자와 익은 과일 향이 나는 것이 특징이며, 차를 마시면 입안에 향을 머금고 있다.

르웨탄 호호차 (HOHOCHA)



호호차 웹사이트

호호차(囍囍茶)의 모회사는 원래 차밭 묘목장, 화훼 등 사업을 운영했었고, 후에 르웨탄 근처에 르웨탄 산장 농장을 설립하고, 농장 옆에 타이완 르웨탄 홍차 공장도 호호차를 설립했다. 티켓을 구매하고 들어가면 홍차 생산과정을 보면서 찻잎 한 장이 어떻게 차 한 잔으로 바뀌는지 알 수 있고, 타이완 홍차와 홍차 계란을 그 자리에서 맛볼 수 있다.

호호차는 현재 타이완에서 가장 큰 홍차 테마 관광공장으로 100 년 된 차나무와 6,000 그루가 넘는 차나무가 있는 광활한 차밭 외에도 찻잎말기, 차시음, 봉차(차 타임캡슐), 홍차피자 등 DIY 체험을 할 수 있다.

르웨탄 호호차는 넓은 차밭과 차 관광 공장이 있으며, 홍차 제조 공정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샤오뽀텐 식당

- 동딩 우롱차 로스팅



샤오뽀텐 식당 페이스북

난터우 루구(鹿谷)는 타이완 동딩 우롱차의 발상지이다. 이 지역 우롱차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포장하기 전에 숯불로 말려 우롱차에 약간의 곡물, 꽃, 과일향이 베이게 하여 차를 마셨을 때 텅텅하지 않고 목넘김을 부드럽게 해준다.

현지 텐마마 샤오뽀텐 식당(田媽媽小半天風味餐坊)은 농업부의 지원을 받는 식당이다. 3대에 걸쳐 이곳에서 차와 죽순을 재배해 온 류씨 일가가 1999년 921 지진으로 인해 차밭과 대나무밭이 심각한 피해를 입은 후 농업부의 지원을 받아 식당으로 업종을 전환하게 되었다. 그 후 2대 여주인이 본가의 요리비법을 물려받아 불과 몇 년 만에 차 훈제 닭고기와 죽순 미트볼 요리로 유명한 맛집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3대 장남 류송제(劉松杰)는 요리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고, 그의 며느리 샤오나이위(蕭乃瑜)는 농업부 차 산업 개량연구소에서 평차사(티소물리에)로 일하고 있다.

샤오뽀텐에 올 때는 '차 시음 및 로스팅' 체험 예약을 추천한다. 전문 평차사가(티소물리에) 차 경연 대회의 형태로 다양한 종류의 타이완 차를 시음하게 하고, 작은 스토브에 동딩 우롱차를 로스팅한다.



르웨탄 음식생활 축제 페이스북

르웨탄 음식생활

축제에서 맛보는 커피 한 잔

르웨탄 커피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이곳의 평균 고도가 700m로 커피 재배에 적합하다는 것이다. 또한 일찍이 빈랑나무와 차나무가 많이 심어져



루구의 샤오뽀텐 식당에 전문 평차사가 이끄는 타이완 차의 다양한 맛을 체험할 수 있다.

있어 커피 농가가 그 옆에서 커피를 재배하는데 주변의 빈랑나무는 풍부한 이슬과 안개, 그늘을 유지하게 하여 이곳의 커피는 특별한 풍미를 지닌다. 처음에는 깔끔하고 부드럽고 과일 산미가 있으며 일부는 차 향이 나는 반면 중간에는 농후함, 끝은 달콤한 뒷맛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더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소규모 커피 농장들은 재배, 건조, 로스팅부터 커피 판매까지 원스톱으로 이루어져 자신들의 커피 특색을 명확히 파악하고 있으며 이들 중 커피 대회에서 수상한 사람들도 적지 않다. 많은 농장에서는 커피콩 따기와 커피콩 로스팅 그리고 커피 시음 등의 체험을 제공하고 있다.

매년 12월 첫째 주 토요일 르웨탄 상산 관광안내센터 광장에서 개최하는 르웨탄 음식생활 축제에 현지 커피 농가들과 차 농가, 난초 농가, 버섯 농가가 모여 전시회를 열고 있다. 타이완에서 규모가 가장 큰 커피콩 건조장이 광장 중앙에 설치되어 커피콩 가공과정을 직접 볼 수 있으며 또한 시음과 강의 등 다양한 활동도 펼쳐진다.



1 매년 12월 첫째 주 주말에, 르웨탄 향산관광객센터(向山遊客中心)에서는 정기적으로 '르웨탄 음식생활 축제'를 개최하는데, 많은 커피와 차 농가들이 찾아와서 노점을 열고 다양한 지식을 공유한다. 2 매년 축제 때 광장에는 커피 건조장이 성대하게 들어서고, 전문가가 커피 가공 과정을 해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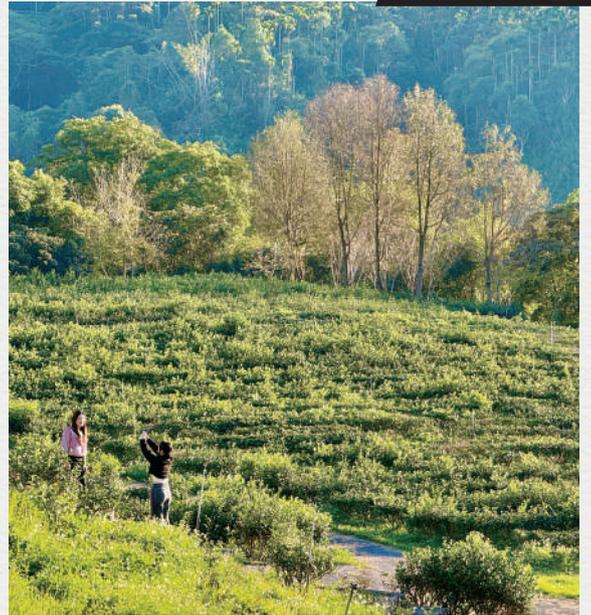


산림 속 루까오 커피농장

루까오 커피농장 웹사이트

루까오(鹿窩)는 르웨탄에서 약 10km 떨어진 곳의 지명으로, 예전에는 사슴들이 모여 물을 마셨다고 전해진다. 타이와 농림공사에 소속된 루까오 커피농장은 일제 시대에 설립된 100년 된 차 공장으로 최근에는 차 외에도 커피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루까오 커피농장에서는 클라우드 아메리카노를 추천한다. 만드는 방법을 말하자면 아메리카노의 원래 물을 비율에 맞게 얼음 조각으로 바꾸고, 얼음 조각에 에스프레소를 더한 다음 증기로 고르게 한다. 이 과정에서 커피 오일이 들어간 거품이 생기게 되는데 커피 자체는 연해지지만 그 위의 거품에는 진한 커피향이 남아있어 맛이 아주 좋다.



르웨탄 근처의 루까오 커피농장은 아름다운 전원과 차밭과 커피밭의 경치를 가지고 있으며, 커피와 경치를 감상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을 가지고 있다.

21호 국도 옆 러닝와일드 커피

러닝와일드 커피관 웹사이트

러닝와일드 커피(山豬衝吧咖啡館, Running Wild)는 난터우 푸리에서 르웨탄 방향으로 갈 때 꼭 경유해야 하는 21번 국도 옆에 있다. 눈에 잘 띄지 않는 차분한 색의 작은 단층 건물에 있는 카페를 그냥 지나치기 쉽지만, 많은 바리스타들이 르웨탄에 오면 꼭 방문하는 가게이다. 주된 이유는 커피가 매우 맛있기 때문이다. 카페 주인인 선용웨이(沈詠為)은 직접 커피를 재배하며 전국 커피 로스팅 챔피언, 4회 르웨탄 부티크 커피 평가 챔피언, 난터우현 커피 평가 특별상, 장화현 커피 평가 특별상 등 많은 상을 수상했다. 그는 커피나무 심기와 커피콩 가공, 핸드 드립 및 시움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막힘이 없다.



3

빈랑숲 속의 캐논 커피농장

캐논 커피농장 페이스북

캐논 커피농장(花音咖啡莊園, Kanon Estate)의 주인인 가오위춘(高郁淳)은 빈랑 가문 출신으로 아버지의 빈랑나무 아래에 커피를 심고 르웨탄 주변의 커피 농가들과 함께 마케팅과 홍보를 하여 르웨탄 커피계의 핵심 인물이 되었다.

캐논 커피농장은 난터우현 커피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하고, 타이완 국내 부티크 커피 평가에서 '부티크 커피'상, 르웨탄 부티크 커피 평가 금상을 수상하는 등 여러 수상경험이 있다. 더욱 특별한 것은 가오위춘과 일본의 커피 로스팅 챔피언인 콘도케이(近藤敬)가 커피로 맺어진 부부라는 것이다. 이 부부는 커피를 함께 재배하는 것 외에도 타이완에서 자체 커피로스팅 브랜드를 설립할 계획이다.

캐논 커피농장은 예약제로 운영하며 산 속에서 커피를 마시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10월부터 2월까지 커피가 익는 계절에는 커피콩을 따고, 씻거나 햇볕에 말리고, 로스팅하고 드립 체험으로 커피의 생산지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자신만을 위한 커피를 만들어 볼 수도 있다.



4

3 타이21번 도로 옆에 위치한 러닝와일드 커피관은 많은 바리스타가 르웨탄에 갈 때 놓치지 않는 가게이다. 4 산간 지역에 위치한 캐논 커피농장은 현재 여전히 많은 빈랑나무가 보존되어 있으며, 생산 시즌에는 빈랑 경관을 수확할 수 있고, 커피나무와 빈랑나무가 함께 자라는 모습도 볼 수 있다.



Profile 천즈동 (陳志東)

고양이가 옆에 있으면 오후 온종일 같이 놀 수 있고, 카메라가 있으면 평범한 사물에 숨겨진 깊은 인정을 볼 수 있다. 농지와 목장 그리고 항구에서 식재료가 생산되는 과정을 보는 것을 좋아하는 프리랜서 기자.

(Mall)

온천몰 그 잡채

타이완 온천

10 가지의 온천수 그리고 128 곳의 온천 지대



1 스총시 온천은 연중 온난한 남쪽 날씨와 어우러져 힐링 여행지로 각광받고 있다. 2 각 온천수마다 다른 효능을 지니고 있어 몸의 필요에 따라 골라 즐길 수 있다.

이 지구상에 타이완 만큼 '물뿜'으로 축복받은 땅이 또 어디 있을까 싶다. 우리나라 경상남북도를 합친 정도의 면적에 해발 3천미터급 산봉우리 284 개가 절경을 뽐내고 있고, 타이완의 비옥한 토질은 아열대 기후의 충족한 강수량과 일조량이 삼위일체를 이루면서 양질의 농작물을 영글어낸다. 그리고 땅속 깊은 곳에도 또 하나의 축복을 품고 있으니 그것은 바로 온천수이다.

타이완에는 성분과 특성에 따라 10 가지의 온천수가 샘솟고 있다. 각 온천수마다 다른 효능을 지니고 있어 내 몸의 필요에 따라 골라 즐길 수 있다. 먼저 유황 성분이 포함된 유황천(硫磺泉)은 혈액 순환과 항염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약산성의 온천수인 탄산천(碳酸泉)은 혈관 확장과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되며, 염천(鹽泉)은 염분이 포함되어 있어 피부 보습과 피부병 치료에 좋다. 빈혈 기운이 있다면 철분 성분이 함유되어 붉거나 노란빛을 띠는 철천(鐵泉)을 권한다.

또 피부 미용과 해독 효과가 뛰어난 흑빛갈의 진흙 온천수(泥漿泉)도 있다. 냉천(冷泉)은 연중 수온이 22 도로 특히 하절기에 인파가 몰리는 편이다. 한여름철에 냉천에 들어가 몸을 식히고 나오면 반나절은 에어컨 바람이 없어도 될 만큼 상쾌하다. 락뎀온천은 락뎀이라는 방사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데, 신진대사 촉진이나 면역력 강화,

신경통을 완화시켜 준다고 알려져 있다. 알칼리성 온천은 무색, 무취의 저자극 온천수로 피부를 진정시키고 보습, 피로 회복에도 좋아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칼슘이 포함된 석회천은 관절, 피부보습에 효과적이라고 하고, 황산 성분이 포함된 유산천은 피부 소독, 염증 완화, 신경통, 류머티즘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

타이완이 유라시아 대륙판과 필리핀 해판의 접점에 위치하고 있어 긴 하지만 현재까지 조성된 온천지대 수는 무려 128 곳이나 된다. 타이완에서는 어디를 파내려 가도 온천물이 펄펄 쏟아져 나올 거라는 농담은 오히려 팩트일지도 모른다. 128 개의 온천 지대 중에서 대표적인 곳의 특성을 살펴 보았다.

우선 타이베이시의 북서쪽 지역에 베이더우 온천(北投溫泉)이 있다. 유황천이 주요 온천수로 이는 크게 녹유황천과 백유황천으로 세분된다. 피부 미용과 혈액 순환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 베이더우 온천지구 에 들어서는 순간 특유의 유황향이 느껴진다. 그리고 '지열곡'이라는 청자빛 유황온천물의 맛이 있다. 지열곡의 온천물 표면에서 올라 오는 수증기는 불규칙적으로 춤을 추듯 머리를 풀고 올라가는 장관을 연출한다.





대만은 현재까지 조성된 온천지대 수는 무려 128곳이나 된다.

우라이 온천 (烏來溫泉) 은 타이베이시와 이웃하는 신베이시에 위치하고 있다. 우라이는 타이완 원주민인 아타얄족의 고향으로 원주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온천 지대이다. 무색무취의 알칼리성 탄산 온천수는 피부를 부드럽게 하고 피로 회복에 효과적이라고 한다. 아름다운 산과 하천이 어우러진 자연 속에서 온천을 즐기며 힐링할 수 있는 장소로 유명하다.

대만 동북부 지역인 이란현에는 자오시 온천 (礁溪溫泉) 이 있다. 타이베이에서 동쪽 지역으로 약 1 시간 거리에 위치한 이란현 자오시는 피부 미용에 뛰어난 약산성 탄산수 성분의 온천을 즐길 수 있는 지역이다. 이곳은 온천 지역은 방문객이 무료로 족욕을 즐길 수 있는 공공시설을 갖추고 있어 현지인들에게 인기가 많다.

또한 대만 남부 지역의 자이현에 위치한 관쯔링 온천 (關子嶺溫泉) 은 세계적으로 드문 흑색 진흙 온천으로 유명하다. 온몸 머드팩 온천인 셈이다. 피부 건강과 해독 효과가 뛰어나다. 온천욕 후 피부가 한층 매끄러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어 미용을 위해 찾는 여행객이 많다.

쓰촨시 온천 (四重溪溫泉) 은 대만 최남단 핑둥현에 자리하고 있다. 이곳은 무색무취의 약알칼리성 탄산수로 피부 진정과 보습 효과가 뛰어나다. 연중 온난한 남쪽 날씨와 어우러져 힐링 여행지로 각광받고 있다.

타이완 온천은 해당 지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지역 특산물과 어우러지면서 휴식 장소 이상의 공간으로서 자리하고 있다. 타이완 사람들은 도처에 온천 지대가 있다보니 온천욕은 일상화되어 있다. 평일에도 일을 마치고 저녁 시간에 인근 온천에 가서 몸을 풀어주고 귀가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리고 보니 타이완 현지인들의 마음이 유난히 따뜻하고 흥기가 느껴지는 이유는 그만큼 자주 온천물을 가까이 해서가 아닐까 싶다.



카이랑 (노해랑)

대만에서 여행-문화 주제의 SNS 채널 운영자이면서 세계테마기행 (EBS1), 포르모사순례단 (EBC) 등 여행 프로그램을 비롯해 다양한 장르의 대만 방송에도 출연하고 있다.

IG: happyguy_kairang FB: 開朗先生 HappyGuy

반딧불이와 특별한 밤을

한국에서 보기 드문 반딧불이. 어른들에게서 예전에는 많았다는 말만 전해 들었을 뿐, 도심에 사는 우리에게 이들의 존재는 낯설기만 하다. 그러나 아열대와 열대 기후가 공존하는 타이완은 반딧불이가 서식하기에 이상적인 환경을 갖추고 있어, 계절을 잘 맞춰 방문하면 어두운 밤을 아름답게 수놓는 반딧불이를 만나볼 수 있다.

풍부한 생태 환경으로 다양한 반딧불이 종이 서식하며 매년 4 월에서 5 월, 전국 각지에서 반딧불이를 보기 위한 이들로 북적인다. 반딧불이는 습하고 깨끗한 계곡과 숲이 있는 지역에서 주로 서식하며 비교적 외진 곳일수록 개체수가 많다. 따라서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일수록 더 많은 반딧불이들을 볼 수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이번에는 반딧불이 시즌을 맞아 생생한 가이드 투어와 생태 및 서식 환경에 대한 설명이 포함된 특별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두 곳을 소개하고자 한다.



대만 농업 관광 사이트



삼푸 농장 공식 웹사이트

즈동 마을 (紫東社區) 반딧불이 패키지 투어

한국 관광객들에게 풍등 날리기로 유명한 평시(平溪). 이곳에 위치한 즈동 마을에서는 타이완에 서식하는 약 50여종의 반딧불이 중 무려 8종을 만날 수 있다.

4월 중순 본격적인 반딧불이 시즌이 시작되면, 폐교를 개조한 교실커피관(教室咖啡館)에서는 반딧불이 가이드와 함께 다양한 체험 활동을 제공한다. 오후 3시부터 즈동 마을소개를 시작으로, 한국에는 좀처럼 없는 꿀 시식 및 천등, 이끼불, 쪽염(천연 염색) DIY 체험을 즐길 수 있으며, 오후 5시 이후에는 저녁 식사도 가능하다.

대략 저녁 식사가 끝나는 오후 6시경부터 반딧불이에 대한 설명이 진행되며, 이후 약 2km를 걷는 반딧불이 투어가 시작되어 저녁 8시에 끝이 난다.

2025년 3월 중순 대만 농업 관광(Taiwan Agriculture Tourism 農業易遊網) 사이트에 즈동 마을이 업데이트 될 예정이며, 즈동 마을(Purple East Community 紫東社區)을 검색하면 관련 정보 열람 및 신청이 가능하다.

숙박과 야간 투어를 한 번에 - 삼푸 레저 농장 (三富休閒農場)

이란현 동산(冬山)에 위치한 삼푸 레저 농장(San-fu Leisure Farm)은 산에 둘러싸여 있어 마치 자연 한 가운데 있는 듯한 편안함을 선사하는 곳이다.

생태 보전이 잘 되어 있는 이곳에서는 현재 2025년 4~6월 동안 숙박과 반딧불이 투어를 함께 진행 중이다. 숙박 비용에는 조식과 석식, 투어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투어에서는 삼푸 농장 내에 서식하는 다양한 곤충을 직접 보고, 만지는 등 다채로운 체험이 가능하다.

자연이 선사하는 꿈같은 순간

필자는 반딧불이를 볼 때마다 꿈속에 있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아름다운 자연을 경험하곤 한다. 이 특별한 순간을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느껴보았으면 한다.

반딧불이 투어는 도심에서 자연을 자주 접하지 못하는 아이들과 어른들에게 동화 속 세상으로 떠나는 특별한 추억이 될 것이다.



다다킴

타이완의 남부, 타이난에 거주 중인 7년차 프로 생활러.
타이완인 남편 ED와 타이완의 생활, 다양한 문화, 여행과 미식을 주제로 한 11만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이다.

유튜브: 跟著多多一起走 Dada Kim
인스타그램: commigo_dada
네이버 블로그: 보헤미안 다다킴

멀리 떨어진 곳에선 어떻게 **마주**의 탄생기념일을 준비할까?

媽祖

음력 3월 23일은 '마주'의 탄생일이다. 타이완 각지에서는 이날 전후로 마주의 탄생을 축하하며 '삼월 풍마주(三月瘋媽祖)'의 신앙 문화를 형성한다. 신베이시 공랴오(貢寮)구의 해안 마을에서는 3월 중순 아오디(澳底)의 런허궁에서 타이베이의 관두궁까지 '얼마'라는 여정으로 공랴오에서 맞이한다. 전체 과정은 마주가 아오디, 지무링(雞母嶺), 윈즈坑(蚊子坑), 마강 지역을 신앙 릴레이하듯 해안 마을을 순회하며 다니는 긴 여정처럼 보인다.

마주에 워킹홀리데이로 가볼까?

6년 전 '마강 어촌' 마을에 문화 조사를 하러 갔을 때 이곳에서는 3년에 한 번씩 하는 성대한 마주를 맞이하는 행사가 설날보다 더 중요한 절기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안타깝게도 2020년 코로나로 중단되었고 이번에는 마침내 마주 퍼레이드 행사를 목격할 수 있게 되었지만, 행사를 맡은 마을 어르신은 걱정하고 계셨다. 그 이유는 2018년 한 재단이 마을의 넓은 땅을 매입하면서 주민들과 소송을 제기했는데 대처되는 주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을까? 행사가 정지된 6년 동안 많은 어르신들이 세상을 떠났는데 후손들이 돌아와 행사에 참여할까? 인구와 토지의 이중 손실로 인해 행사의 지속 여부가 불확실해져서 주민들 사이에서는 행사를 간소화하지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꼭 행사에 참여해서 함께 즐기고 싶었기 때문에 동료들과 의논한 결과, 축제를 좋아하고 마강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일종의 워킹홀리데이 지원방식으로 모집할 것을 행사를 맡은 '루주' 어르신에게 제안하였다. 실제로 이번 행사에 20명이 넘는 젊은이들이 지원하여 참여했으며, 해녀 아주머니들도 직접 현지 요리를 준비하고 가게에 휴식 공간을 제공하면서 축제의 원활한 운영이 가능해졌다.

「FOUNTAIN 신활수(新活水)」에 대해

《FOUNTAIN 신활수(新活水)》의 각 호의 주제는 사회문제와 밀접한 내용으로 문화적인 관점에서 사회의 중요한 이슈와 현상을 깊이 탐구하고 발굴하며 지역, 영역, 세대를 뛰어넘은 정신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강렬한 시각적 미학 요소로 잡지의 독특한 매력을 보여주며 문화적 대화를 구축하는 플랫폼으로 인정받고 있다.



Text
린퀘묘오
(林奎妙)

'스자이공작대(石在工作隊)'의 멤버. 다른 핵심 멤버로는 천연량(陳衍良), 허무원(何睦菴)이 있다. 세 사람은 마강지역 출신은 아니지만, 2018년 이후부터 타이완 본섬 동쪽 끝에 위치한 마강 어촌의 강제 이주 문제에 관심을 갖고 더 많은 도시인이 변방 지역에 있는 어촌의 미래에 관심을 갖기 바라는 마음으로 이 지역을 찾아 현장 조사 등의 활동을 해왔다.



워킹홀리데이 참여자의 사진 작업. 향의 현수막에 쓰는 힘을 축제 현수막에 사용한다. 촬영/황신이(黃馨儀)



1 유명한 사원의 장엄한 길을 택하는 대신 의식 중에서 마을의 집단 감이 조성되다. 촬영/양평웨이(楊豐維)
 2 워킹홀리데이 참여자는 팻말(頭牌), 의장기(儀仗)를 드는 것을 도와주거나, 대열을 누비며 사진을 찍고 관찰하고 기록한다. 촬영/량자웨이(梁家璋)

의외로 많이 돌아와준 귀향자들 . 다음을 기약하며 ...

외부의 지원인력이 있었지만 행사를 풍성하게 할 수 있었던 주인공은 마강 주민들이었다 . 우리는 어르신들에게 마을 신앙의 변화에 대해 인터뷰하고 참여했던 청년들에게 행사에서 마주 신을 맞이했던 경험내용을 받아 페이스북 홍보문과 마을 신문으로 만들었다 . 또한 현장에서 도서전과 옛 사진전, 가족 사진 촬영서비스를 진행하여 여행객들에게 감동과 추억을 되새길 수 있을 것이다 .

행사 당일에는 예상외로 많은 귀향자들이 몰렸다 . 심지어 직접 신교를 어깨에 메고 퍼레이드에 참가하고 싶었던 몇몇 워킹홀리데이 구성원들은 고향으로 돌아온 젊은이들이 신교를 메고 가는 것을 지켜보아만 했을 정도이다 . 어떤 사람들은 제사를 준비하기 위해 집에 머물렀던 여성을 위해 기록을 남겼고, 어떤 사람들은 어르신을 도와 붉은 종이에 자손의 이름을 적어 공연단 ‘반시엔’에게 전달하여 축복을 빌었다 . 또한 일부 사람들은 옛 사진전 옆을 지키고 있는데, 주민들에게 사진 속 인물의 신원을 확인한 후, 이름을 사진에 붙이는 수작업 태그 작업을 했다 . 퍼레이드팀이 돌아온 후에는 주민들이 준비한 특별한 간식을 나르는 것을 도우며, 벽적벽적인 분위기의 ‘반쥐’를 함께 하자는 주민들의 초대에 화답했다 . 이후에는 클라우드를 통해 서로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시간 순으로 행사를 자세히 기록하였다 .

신교가 골목을 지나면서 속도를 늦추자, ‘6년 동안 마주 행사가 없었으니 꼭 보러 와야 한다’라며 외치는 목소리가 들렸다 . 줄곧 큰 길로만 다니던 신교는 6년 동안 마강 지역을 방문한 적이 없어 특별히 마을의 골목골목을 다 돌았다 . 평소 굵고 거친 목소리를 가진 형님들은 마을의 변화를 이야기하면서 신교와 함께 지나가는데 그 모습이 마음속에 신앙 뿐만 아니라 6년 동안 고향에 대한 걱정과 기대를 품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

신이 오신 그날, 우리는 마을 주민들이 가장 익숙하고 기대하는 행사에 몰두하여 오랜기간 정지되었던 행사를 성대히 진행하면서 마강이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음을 확신하게 되었다 . 워킹홀리데이 참가자들은 직접 참여하고 대접받으면서 이 장소에 더욱 애착을 갖게 되었다 . 그날 이후, 마주탄생일이 다시 오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하며 다음을 기약하였다 .

설명

마주 (媽祖) : 전설 속 배의 방향을 인도하는 바다의 여신 . 17 세기에서 18 세기, 많은 한인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타이완으로 올 때,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마주에게 제사를 지내곤 했다 . 마주는 오늘날 타이완 민속신앙에서 가장 보편적인 신으로, 여행 중 마주에게 평안을 기원하는 기도를 드리러 가는 것도 좋다 . 마주 신교는 중요한 민속 행사로, 많은 인파가 신교를 따라 도보로 행진하며 사원을 방문한다 .

마강 어촌 (馬崗漁村) : 타이완 동해이자오, 산다오 자오 등대 근처에 위치한 이곳은 지리적으로 타이완 본섬 가장 동쪽에 있는 어촌 마을이다 . 오늘날에도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온 해녀들의 전통문화와 돌집들이 남아있다 . 최근 한 개발업체가 어촌 마을의 땅 절반을 인수하고 주민들을 강제 퇴거시킨 사건이 발생하면서, 주민 인권과 문화재 보존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 .

얼마 (二媽) : 마주의 신상 분신 . 타이완에서는 신도들이 마조에게 출장을 청할 기회가 많기 때문에, 사원에서는 많은 종교 활동에 부응하기 위해 여러 개의 마조 신상을 만들어 자주 볼 수 있다 .

루주 (爐主) : 연례 제사 행사의 주최자는 신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루주 선발은 보통 신의 생일이나 특정 날짜에 진행된다 .

반시엔 (扮仙) : 타이완 민속 제사 행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연극 형식으로, 배우가 하늘의 신선을 연기하며 신명에게 축복을 빈다 . 붉은 종이에 적힌 이름은 배우들이 무대에서 신도들의 개인적인 축복을 기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

반쥐 (辦桌) : 타이완에서는 가족, 친구, 이웃을 초대해 함께 식사하며 축하하는 흔한 행사이다 .

그 밤 관쯔링에서

이민용



photo/타이난시정부

그 밤
관쯔링의 어둠과 유황 내음 속에서
질은 향수에 젖어
구불구불한 산길을 따라
남겨진 발자국을 따라 걸었네

那晚
關仔嶺的夜色在硫磺味中
有一種鄉愁
我們沿著蜿蜒的山路
尋覓曾經留下的足跡

기억 속
작은 산골 마을
개울을 가로지르는 작은 다리
나무로 지어진 온천 여관
다다미 방에서 들려오던 연인들의 속삭임

記憶中
一個小小的山城
小橋跨越溪流
木造的溫泉旅館
榻榻米夜眠中情人的低語

하늘은
검은 현이 연주하는 악보가 되어
자연의 꿈을 그리고
해가 떠오를 때쯤
비로소 무대의 막이 내리네

天空是
黑色琴弦演奏的樂譜
編織自然的夢
日出時
舞台才關上簾幕

관쯔링에서의 사랑은
한 곡의 노래가 되고
여성 시인은
시로 인생의 풍경을 담아
온천 마을 이야기 속에 그 흔적을 새기네

一段關仔嶺之戀
成為一首歌
笠園裡有一位女詩人
以詩留下人生風景
印記在溫泉鄉物語

그 밤, 관쯔링 온천에서
사랑의 추억은 속삭임으로 남아
새 발자국이 옛 발자국 위에 새겨지네

那晚在關仔嶺溫泉
戀情的追憶夾著絮語
新的足跡印在舊的足跡

머리 위로 별들이 빛나고
갯가에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려오네

星星在上方
水流聲在身旁



Profile

이민용 (李敏勇)

타이완 핑둥 출신. 1947년 가오슝에서 태어났으며 대학에서는 역사를 연구했다. 현재는 타이베이에 거주하고 있다.

한평생 문학을 직업으로 삼았으며, 일찍이 시 간행물 《삿갓》 편집을 주관했고, <타이완 문예> 사장과 <타이완 문예 교류회> 회장을 맡았다. <구름의 언어>, 《어두운 밤》, 《진혼가》, 중국어-영어 대조 시선 《사모와 예수》 등의 작품과 산문, 소설, 문학평론과 사회평론집 등 90여 권을 출판했다.

우용평평론상, 우취류신시상, 라이허문학상을 수상했으며, 제 11 회 국가문예상 수상, 2022년 제 4 회 행정원 문화상을 수상했다.

☆ 친환경에 힘쓰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여 주세요

지속 가능한 여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5년 1월 1일부터 타이완의 숙박업소에서는
일회용 비품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개인 위생용품을 직접 준비하여
함께 친환경적인 일상을
만들어 가는 데 동참해 주세요.



TAIWAN

WAVES OF WONDER

Enjoy NOW

대만에서 힐링의 여정을 떠나 보세요
도심과 교외 그 어디에서도 심신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대만의 아름다움을 느끼며 여유로운 시간을 마음껏 즐겨 보세요

www.taiwan.net.tw

交通部觀光署
Tourism Administration, MOTC